# 도시취업자의 세대간 계층이동과 세대내 유동성

황덕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패널조사(KLIPS)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해서 최초 직업 및 현재 직업을 통해 판정된 자녀의 계층 귀속을 결정하는 데 부모의 계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최초 계층이 현재의 계층 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항로짓분석을 이용해 살펴봄으로써 세대간 계층이동과 세내내 유동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계층이동에서 교육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점, 각 계층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현재의 계층 귀속에 최초의 직업선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계층간 이동의 가능성이 어려운 정도로부터 고용주, 자영자 일부, 사무직, 자영자 일부, 생산직의 순서로 도시취업자 계층에 서열이 나타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정책적인 함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세대간 계층이동에서 교육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층간 유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가 계층간에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1. 들어가는 글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취업구조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취업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식통계자료는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 및 주택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 1960년대 이후 취업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963년부터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취업구조의 변화를 5년씩 묶어서 살펴본 것이 <표 1>이다. 여기에서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산업과 종사상 지위만을 이용하여 농림어업종사 자영자(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농림어업 종사 피용자, 비농(2차 및 3차산업 종사) 자영자(고용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농 (2차 및 3차산업 종사) 피용자의 네계층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표 1>에 따르면 1963 1967년 사이에 농업부문 종사자는 59.2%에 이르렀던 반면 30년이 지난 1993 1997년 사이에는 12.7%에 불과. 자영자와 피용자 사이의 비중을 보면 농업과 비농부문 모두를 포함한 피용자의 비중이 1963 1967년 사이에 38.2%에서 1993 1997년 사이에는 62.3%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피용자 내부 구성의 변화를 보면 농업부문 피용자의 비중은 1963 1967년에 9.6%에서 1993 1997년 사이에 0.9%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비농부문 피용자는 동일 기간 사이에 28.6%에서 두 배가 넘는 61.4%로 증가하였다. 자영자 내부에서도 유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들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준다.

---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표 1>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취업구조 변화

(단위 : 천명, %)

| | | 총취업자 | 농업[1]자영자[2] | 농업피용자 | 비농[1]자영자[2] | 비농피용자 |
|---|---|---|---|---|---|---|
| 1963-67 | 남 | 5,306 | 2,461 (46.4) | 512 (9.6) | 813 (15.3) | 1,520 (28.6) |
| | 녀 | 2,856 | 1,678 (58.8) | 181 (6.3) | 546 (19.1) | 450 (15.8) |
| | 전체 | 8,161 | 4,139 (50.7) | 693 (8.5) | 1,359 (16.7) | 1,970 (24.1) |
| 1968-72 | 남 | 6,229 | 2,399 (38.5) | 515 (8.3) | 1,073 (17.2) | 2,242 (36.0) |
| | 녀 | 3,559 | 1,807 (50.8) | 232 (6.5) | 745 (20.9) | 775 (21.8) |
| | 전체 | 9,788 | 4,206 (43.0) | 747 (7.6) | 1,818 (18.6) | 3,017 (30.8) |
| 1973-77 | 남 | 7,504 | 2,731 (36.4) | 475 (6.3) | 1,257 (16.8) | 3,040 (40.5) |
| | 녀 | 4,498 | 2,069 (46.0) | 241 (5.4) | 1,054 (23.4) | 1,133 (25.2) |
| | 전체 | 12,002 | 4,800 (40.0) | 717 (6.0) | 2,311 (19.3) | 4,174 (34.8) |
| 1978-82 | 남 | 8,533 | 2,349 (27.5) | 357 (4.2) | 1,701 (19.9) | 4,126 (48.3) |
| | 녀 | 5,319 | 1,873 (35.2) | 249 (4.7) | 1,383 (26.0) | 1,814 (34.1) |
| | 전체 | 13,852 | 4,223 (30.5) | 606 (4.4) | 3,084 (22.3) | 5,939 (42.9) |
| 1983-87 | 남 | 9,186 | 1,903 (20.7) | 263 (2.9) | 1,990 (21.7) | 5,031 (54.8) |
| | 녀 | 5,968 | 1,487 (24.9) | 189 (3.2) | 1,668 (27.9) | 2,624 (44.0) |
| | 전체 | 15,153 | 3,390 (22.4) | 452 (3.0) | 3,657 (24.1) | 7,655 (50.5) |
| 1988-92 | 남 | 10,723 | 1,620 (15.1) | 140 (1.3) | 2,396 (22.3) | 6,567 (61.2) |
| | 녀 | 7,295 | 1,362 (18.7) | 121 (1.7) | 1,867 (25.6) | 3,945 (54.1) |
| | 전체 | 18,018 | 2,982 (16.6) | 261 (1.4) | 4,263 (23.7) | 10,512 (58.3) |
| 1993-97 | 남 | 12,049 | 1,259 (10.5) | 86 (0.7) | 3,022 (25.1) | 7,682 (63.8) |
| | 녀 | 8,208 | 1,126 (13.7) | 88 (1.1) | 2,238 (27.3) | 4,755 (57.9) |
| | 전체 | 20,257 | 2,386 (11.8) | 174 (0.9) | 5,260 (26.0) | 12,437 (61.4) |

주 1) 농업은 농림어업 종사자를 지칭하고 비농은 비농림어업 종사자를 지칭함.

2) 자영에는 고용주, 자영자, 가족종사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1>에 따르면 1963 1967년 사이에 농업부문 종사자는 59.2%에 이르렀던 반면 30년이 지난 1993 1997년 사이에는 12.7%에 불과. 자영자와 피용자 사이의 비중을 보면 농업과 비농부문 모두를 포함한 피용자의 비중이 1963 1967년 사이에 38.2%에서 1993 1997년 사이에는 62.3%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피용자 내부 구성의 변화를 보면 농업부문 피용자의 비중은 1963 1967년에 9.6%에서 1993 1997년 사이에 0.9%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비농부문 피용자는 동일 기간 사이에 28.6%에서 두 배가 넘는 61.4%로 증가하였다. 자영자 내부에서도 유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들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구조의 변동에 수반된 다양한 현상 가운데 두가지 측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지난 40년간 급속하게 증가해 온 도시의 비농부문 취업자층의 세대간 재생산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농부문 취업자의 최초 취업시 계층과 현재 계층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일 세대내에서 계층간 유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도시지역의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표본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조사(KLIPS)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자료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최초취업시 계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최초취업시 계층이 현재계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세대간 이동과 세대내의 유동성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동일한 노동자 계층에 속하더라도 부모의 계층에 따라 현재 계층에서의 임금소득이 달라지는가, 즉 동일계층내에서도 더 나은 집단에 속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 2. 자료의 특성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조사는 표본가구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이들에 대해 현재 시점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14세 시점의 부모[1]의 경제활동상태(취업여부,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가 조사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부모의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조사된 정보만을 이용하여 계층을 구분한다.

이 연구에서 계층은 산업과 직종, 종사상 지위를 결합하여 농업자영, 농업피용, 비농고용주(이하에서는 고용주로 호칭), 비농자영자(가족종사자 포함, 이하에서는 자영자로 호칭), 비농사무관리직(직업대분류 1 4까지, 이하에서는 사무직으로 호칭), 비농생산서비스직(직업대분류 5 이상, 이하에서는 생산직으로 호칭)의 여섯가지, 혹은 농업자영과 농업피용을 합한 다섯가지로 분류된다.[2]

주의할 것은 자식의 계층별 분포가 도시지역 거주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부모의 계층별 분포는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모의 경우 주거지역이 도시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계층별 분포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계층별 분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재정리하여 비교한 것이 <표 2>이다. 조사시점과 자식의 연령을 고려하면 조사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가 언제 시점에 해당하는가를 유추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해서는 남자를 기준으로 한 계층별 분포와 비교하였다.

---

1) 아버지의 상태를 기본으로 한다.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상태를 조사하였다.

2) 여기에서 계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통상적으로 계급론이나 계층론 연구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직업집단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에 비추어 본다면 자영부문에서는 자영자보다는 고용주, 피용자 가운데서는 사무직을 생산직보다 더 상위집단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표 2> 경제활동인구조사(남자)와 패널조사 부모의 연도별 계층 분포 추이

(단위 : %)

|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 | | | 패널조사의 부모 | | | |
|---|---|---|---|---|---|---|---|---|
| | 농업자영 | 농업피용 | 비농자영 | 비농피용 | 농업자영 | 농업피용 | 비농자영 | 비농피용 |
| 1963-67 | 46.4 | 9.6 | 15.3 | 28.6 | 66.3 | 1.5 | 15.9 | 16.3 |
| 1968-72 | 38.5 | 8.3 | 17.2 | 36.0 | 60.0 | 0.6 | 19.8 | 19.7 |
| 1973-77 | 36.4 | 6.3 | 16.8 | 40.5 | 55.8 | 0.8 | 23.2 | 20.3 |
| 1978-82 | 27.5 | 4.2 | 19.9 | 48.3 | 45.7 | 1.0 | 23.3 | 30.0 |
| 1983-87 | 20.7 | 2.9 | 21.7 | 54.8 | 33.2 | 1.4 | 26.3 | 39.1 |
| 1988-92 | 15.1 | 1.3 | 22.3 | 61.2 | 18.5 | 0.6 | 31.6 | 49.3 |
| 1993-97 | 10.5 | 0.7 | 25.1 | 63.8 | 8.6 | 0.7 | 35.2 | 56.0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KLIPS(1차년도).

<표 2>를 보면 우선 패널조사의 부모의 분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1988 1992년까지는 농업부문의 비중이 더 높고, 농업부문 내에서도 피용자의 비중이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현저히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두 번째로 비농부문 종사자내에서 자영자와 피용자의 분포를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자영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표본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부모의 계층에서 농업부문종사자는 하나의 계층으로 통합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계층별 재생산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본에 조사된 집단의 현재계층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취업자의 경우 계층을 부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현재 무직자(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계층을 부여하기 곤란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무직자의 경우에는 지난 3년 이내의 취업자에 대해서만 이들의 취업관련 정보에 따라 계층을 부여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현재계층을 부여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표본의 현재 계층 분포

(단위 : 명, %)

| | | 전체 | 농업종사자 | 사무직 | 생산직 | 고용주 | 자영자 |
|---|---|---|---|---|---|---|---|
| 15세 이상 표본 전체 | 남 | 5,241 | 403 (7.7) | 1,239 (23.6) | 2,258 (43.1) | 524 (10.0) | 817 (15.6) |
| | 녀 | 5,005 | 482 (9.6) | 1,604 (32.1) | 1,843 (36.9) | 164 (3.3) | 912 (18.2) |
| 3년 이내 취업자 | 남 | 4,883 | 325 (6.7) | 1,180 (24.2) | 2,111 (43.2) | 479 (9.8) | 788 (16.1) |
| | 녀 | 3,706 | 308 (.8.3) | 1,113 (30.0) | 1,383 (37.3) | 123 (3.3) | 779 (21.0) |
| 현재 취업자 | 남 | 3,862 | 290 (7.5) | 992 (25.7) | 1,463 (37.9) | 408 (10.6) | 709 (18.4) |
| | 녀 | 2,459 | 257 (10.5) | 695 (28.3) | 747 (30.4) | 90 (3.7) | 670 (27.3) |
| 3년 이내 비농 취업자 | 남 | 4,558 | - | 1,180 (25.9) | 2,111 (46.3) | 479 (10.5) | 788 (17.3) |
| | 녀 | 3,398 | - | 1,113 (32.8) | 1,383 (40.7) | 123 (3.6) | 779 (23.0) |

주 : 패널조사의 15세 이상 전체 표본 가운데 변수의 누락으로 계층분류가 불가능한 현재 취업자 3,502명과 3년 이내 취업경험이 있는 163명에 대해서는 계층을 부여하지 못함.

자료 : KLIPS(1차년도)

<표 3>에는 3년 이내 비농부문 취업자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비농부문 취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농부문 종사자의 경우 전체 비농부문 종사자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 연구의 목적이 도시지역 비농부문 취업자의 세대간 재생산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현재 계층 분석에 사용된 남녀 및 전체의 계층별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의 수치가 <표 3>의 3년 이내 비농취업자수보다 적은 이유는 부모의 계층을 부여할 수 없는 집단이 다시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표 4> 현재 계층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계층분포

(단위 : 명, %)

| | 계 | 사무직 | 생산직 | 고용주 | 자영자 |
|---|---|---|---|---|---|
| 남 | 4,280 | 1,102(25.8) | 1,969(46.0) | 456(10.7) | 753(17.6) |
| 녀 | 3,196 | 1,036(32.4) | 1,308(40.9) | 110(3.4) | 742(23.2) |
| 전체 | 7,476 | 2,138(28.6) | 3,277(43.8) | 566(7.6) | 1,495(20.0) |

자료 : KLIPS(1차년도)

전체적으로 계층 분포를 보면 생산직의 비중이 가장 높고, 사무직, 자영자, 고용주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 3. 최초 취업시 계층을 통해 본 세대간 계층이동

제3장에서는 생애이력에서 최초취업이 비농부문인 표본을 대상으로 최초취업시의 계층 귀속이 부모의 계층 귀속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분석한다. 우선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도시노동력의 형성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로는 배진한(1977), 박진도(1991)의 연구 등을 찾을 수 있다. 배진한(1977)과 박진도(1991)의 연구는 모두 동일 세대내에서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동한 인구와 관련된 연구이다. 배진한(1977)은 농촌으로부터 도시의 노동이동이 도시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고, 박진도(1991)의 경우 「인구 및 주택총조사」와 「1983 인구이동특별조사」를 이용하여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집단이 이동후 어떠한 경제활동상태를 경험하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대간 이동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로는 차종천(1991)과 신광영(1994)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사회이동표」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차종천(1991)은 1990년에 실시한 「1990 불평등과 형평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남성세대간 직업이동을 분석하였다. 그는 직업범주를 정신근로자층, 육체근로자층, 농민의 셋으로 서열화하고 이로부터 얻은 3×3 세대간 직업이동표를 이용한 상호연관모형 분석을 통해 ①부친의 직업범주가 높을수록, 인접하는 두 직업범주사이에서 보다 높은 것에 소속될 확률이 높아지고, ②부친이 육체노동자이거나 농민인 경우에는 본인이 육체노동자층보다 정신근로자층에 소속되기 더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한편 신광영(1994)은 분석시각을 달리하여 세대간 계급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라이트(1985)의 방법을 원용하여 계급을 자본가, 도시쁘띠, 농촌쁘띠, 경영자, 전문가, 노동계급의 여섯가지로 구분하고, 1991년 3월에 실시된 「경제활동 및 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신광영(1994)은 상대적 계급이동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농촌쁘띠, 도시쁘띠, 전문가, 노동계급의 순으로 계급세습률이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반면 자본가계급과 경영관리자들에게서 계급세습이 낮지만 이는 1세대내에서 형성된 젊은 계급으로서 아직 본격적인 계급세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배진한(1977)이나 박진도(1991)과는 달리 세대간의 계층이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또한 세대내 이동에서도 상관관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계층귀속이 현재의 계층귀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부모의 계층분포가 대표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세대간의 재생산에서 현재 세대로의 유입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이동표를 이용한 분석은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최초 및 현재의 계층귀속에 대한 결정요인이라는 차원에서 부모의 계층귀속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분석방법과 가장 유사한 것은 자영업 부문에 대해 연구한 류재우 · 최호영(1999)이다. 류재우 · 최호영(1999)의 경우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 다룬 것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피용자가 아니라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로짓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최초계층을 비교한 교차표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5>에는 부모와 본인의 계층 구분이 가능한 취업경험자 전체와 이를 남녀로 나누어 최초계층과 부모의 계층을 비교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살펴본 것은 남자와 여자의 계층별 재생산 구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부모의 계층은 대표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식의 현재계층으로의 유입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최초계층별로 부모계층의 분포를 보여주도록 각 행의 합(농업에서 자영자까지)이 100이 되도록 표가 그려져 있다. 마지막 열의 계에는 자식의 현재계층별 분포가 세로로 합이 100이 되도록 그려져 있다.

<표 5>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최초 취업시 계층 비교

| 본인 \ 부모 | | 농업 | 사무직 | 생산직 | 고용주 | 자영자 | 계 |
|---|---|---|---|---|---|---|---|
| 전체 | 사무직 | 1,044 (36.6) | 555 (19.5) | 450 (15.8) | 368 (12.9) | 434 (15.2) | 2,851 (35.4) |
| | 생산직 | 2,274 (57.7) | 267 (6.8) | 658 (16.7) | 239 ( 6.1) | 502 (12.7) | 3,940 (48.9) |
| | 고용주 | 187 (51.2) | 39 (10.7) | 32 (8.8) | 53 (14.5) | 54 (14.8) | 365 (4.5) |
| | 자영자 | 571 (63.6) | 63 ( 7.0) | 61 (6.8) | 68 ( 7.6) | 135 (15.0) | 898 (11.2) |
| | 계 | 4,076 (50.6) | 924 (11.5) | 1,201 (14.9) | 728 ( 9.0) | 1,125 (14.0) | 8,054 (100.0) |
| | $\chi^2(12) = 597.0, p=0.001$ | | | | | | |
| 남자 | 사무직 | 518 (43.3) | 234 (19.6) | 152 (12.7) | 137 (11.5) | 156 (13.0) | 1,197 (29.8) |
| | 생산직 | 1,176 (53.2) | 158 ( 7.1) | 434 (19.6) | 141 ( 6.4) | 303 (13.7) | 2,212 (55.0) |
| | 고용주 | 139 (50.9) | 28 (10.3) | 26 ( 9.5) | 36 (13.2) | 44 (16.1) | 273 (6.8) |
| | 자영자 | 202 (59.6) | 17 ( 5.0) | 34 (10.0) | 25 ( 7.4) | 61 (18.0) | 339 (8.4) |
| | 계 | 2,035 (50.6) | 437 (10.9) | 646 (16.1) | 339 ( 8.4) | 564 (14.0) | 4,021 (100.0) |
| | $\chi^2(12) = 221.2, p=0.001$ | | | | | | |
| 여자 | 사무직 | 526 (31.8) | 321 (19.4) | 298 (18.0) | 231 (14.0) | 278 (16.8) | 1,654 (14.0) |
| | 생산직 | 1,098 (63.5) | 109 ( 6.3) | 224 (13.0) | 98 ( 5.7) | 199 (11.5) | 1,728 (42.9) |
| | 고용주 | 48 (52.2) | 11 (12.0) | 6 ( 6.5) | 17 (18.5) | 10 (10.9) | 92 ( 2.3) |
| | 자영자 | 369 (66.0) | 46 ( 8.2) | 27 ( 4.8) | 43 ( 7.7) | 74 (13.2) | 559 (13.9) |
| | 계 | 2,041 (50.6) | 487 (12.1) | 555 (13.8) | 389 ( 9.7) | 561 (13.9) | 4,033 (100.0) |
| | $\chi^2(12) = 473.8, p=0.001$ | | | | | | |

주 1) 분석대상인 최초직장이 비농업부문인 자는 모두 8,590명임. 이 중 부모의 계층분류가 불가능한 536명은 제외되었음.

자료 : KLIPS (1차년도)

우선 전체 표본의 결과를 살펴보자. 최초 계층이 사무직인 경우 부모가 사무직이거나 고용주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농업종사자인 경우는 매우 적다. 다음으로 최초 계층이 생산직인 경우에는 부모의 계층이 생산직이거나 농업종사자인 경우가 많고, 다른 계층으로부터 온 경우는 평균보다 낮다. 가장 낮은 것은 사무직으로부터 온 경우이다. 고용주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온 경우가 가장 많고, 생산직으로부터 온 경우는 매우 적다. 다른 계층으로부터 온 경우는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영자의 경우 농업종사자로부터 온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생산직에서 온 경우가 평균보다 가장 적다.

전체적으로 살펴본 최초 계층과 부모 계층의 분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고용주와 사무직의 경우 부모의 계층으로 처음 취업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 생산직과 자영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녀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표 5>의 아랫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살펴본 경우와 달라지는 것은 여자에서 현재 생산직이나 자영자인 경우 부모가 생산직이거나 자영자인 경우가 평균적인 부모의 계층분포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이다. 반면에 남자의 경우 고용주나 사무직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생산직이나 자영자인 경우 부모가 생산직이거나 자영자인 경우가 평균적인 부모의 계층분포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또한 여자의 경우 부모가 생산직, 고용주, 자영자인 경우에 남자보다 사무직이 된 경우가 많다. 이는 여자의 경우 하위사무직으로 취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표 6>의 경우 자녀의 최초계층과 부모의 계층 사이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귀속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자녀의 최초 계층을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짓분석에서 우리는 기준을 자영자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표 6>에서 자영자가 비교적 자녀의 계층 귀속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부표 3>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초 귀속 계층보다 현재 귀속 계층에서 증가하는 계층으로서 세대내 유용성을 볼때 비교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최초 계층은 생산직(변수값 1), 사무직(변수값 2), 고용주(변수값 3), 자영자(변수값 4)로 나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때 종속변수인 $\text{logit}_{i1} = \log[\pi_{i1}/\pi_{i4}]$은 자영자에 속할 확률에 대비한 생산직에 속할 확률을 이용해서 구해진다. $\text{logit}_{i2} = \log[\pi_{i2}/\pi_{i4}]$와 $\text{logit}_{i3} = \log[\pi_{i3}/\pi_{i4}]$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해진다.

제5장에서 살펴볼 현재 계층 귀속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과 달리 최초계층 귀속의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조사의 특성상 매우 제한적이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은 성별과 최초취업시까지의 일반경력, 교육수준, 부모의 계층, 연령계층이다. 일반경력은 최초취업시 연령에서 교육기간과 취학시 연령인 6을 빼서 구하였다. 연령계층은 현재 시점에서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으로 나누어서 포함하였는데 이는 인적속성을 반영하는 변수가 아니라 시기별로 계층귀속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전체와 남자, 여자를 나누어서 <표 7>, <표 8>, <표 9>로 정리하였다.

또한 추정시에 교육을 포함한 모형과 포함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부표 1>과 <부표 2>에 나타나듯이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 귀속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교육수준은 다시 최초의 계층 귀속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표 1>에서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교육수준의 관계를 보면 사무직, 고용주, 자영자, 생산직, 농업종사자의 순서로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표 6>에는 생산직의 계층귀속 결정요인이 소개되어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계층의 효과는 교육수준을 포함시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약간이 차이가 있다. 우선 교육수준을 포함시킨 경우 부모계층이 유의미하게 자녀의 최초계층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부모가 생산직인 경우뿐이다. 이는 부모가 생산직인 경우 유의미하게 자녀가 자영자보다 생산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수준별로는 여성인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자영자보다 생산직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남자인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 교육수준을 포함시키지 않은 모형의 경우 여성에서 추정결과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고용주의 경우 유의미하게 자영자보다 생산직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영자보다 생산직이 될 확률이 높고, 취업전 일반경력이 짧을수록 자영자보다 생산직이 될 확률이 높다. 연령계층별로는 여성으로서 현재 40세 미만인 집단이 40세 이상인 집단보다 자영자보다 생산직이 될 확률이 높다.

<표 6> logit(생산직/자영자) (최초계층, 전체/남/여)

| 변수명 | 전체 | | 남자 | | 여자 | |
|---|---|---|---|---|---|---|
| | 모델1 | 모델2 | 모델1 | 모델2 | 모델1 | 모델2 |
| 상수항 | 2.372 (0.164) *** | 2.139 (0.133) *** | 2.782 (0.244) *** | 2.812 (0.198) *** | 1.824 (0.231) *** | 1.580 (0.184) *** |
| 성별(여자) | | | | | | |
| 남자 | 0.453 (0.048) *** | 0.398 (0.045) *** | | | | |
| 연령(40세이상) | | | | | | |
| 40세미만 | 0.142 (0.073) | 0.204 (0.071) ** | 0.038 (0.107) | 0.037 (0.104) | 0.199 (0.099) * | 0.260 (0.096) ** |
| 취업 전 일반경력 | -0.004 (0.001) *** | -0.003 (0.000) *** | -0.004 (0.001) *** | -0.004 (0.001) *** | -0.004 (0.001) *** | -0.002 (0.001) ** |
| 교육(대졸이상) | | | | | | |
| 중졸미만 | 0.609 (0.130) *** | | -0.033 (0.188) | | 1.260 (0.189) *** | |
| 고졸미만 | 0.241 (0.096) * | | 0.156 (0.147) | | 0.589 (0.139) *** | |
| 초대졸미만 | 0.128 (0.082) | | 0.082 (0.113) | | 0.423 (0.128) * | |
| 대졸미만 | -0.301 (0.158) | | -0.011 (0.216) | | -0.604 (0.249) | |
| 부모계층 (자영자) | | | | | | |
| 농업 | 0.122 (0.080) | 0.160 (0.078) * | 0.171 (0.118) | 0.171 (0.115) | 0.013 (0.112) | 0.146 (0.107) |
| 생산직 | 0.483 (0.135) *** | 0.560 (0.133) *** | 0.385 (0.178) * | 0.398 (0.177) * | 0.576 (0.209) ** | 0.699 (0.207) *** |
| 사무직 | 0.059 (0.144) | -0.044 (0.142) | 0.238 (0.228) | 0.231 (0.226) | -0.035 (0.195) | -0.239 (0.192) |
| 고용주 | -0.373 (0.137) | -0.411 (0.135) ** | -0.365 (0.202) | -0.370 (0.200) | -0.356 (0.193) | -0.493 (0.188) ** |
| obs | 6051 | 6051 | 3331 | 3331 | 2720 | 2720 |
| -2log likelihood | 10871.65 | 12176.60 | 6065.0 | 6915.63 | 4624.68 | 5045.0 |
| chi-sq | 9498.04 | 9177.12 | 5296.42 | 5056.16 | 4019.65 | 3905.0 |
| df | 15402 | 13014 | 8412 | 6951 | 6960 | 6045 |
| p-value | 1.0 | 1.0 | 1.0 | 1.0 | 1.0 | 1.0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표 7>에는 사무직의 계층귀속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우선 부모의 계층귀속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추정한 경우에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결과는 주로 여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남자의 경우 교육을 포함한 경우나 포함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인 유의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부모가 사무직인 경우 자영자보다 사무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여자의 경우 부모가 생산직이거나 농업종사자인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부모가 농업종사자인 경우 사무직보다 자영자가 될 확률이 더 높지만 부모가 생산직인 경우에는 자영자보다 사무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하위사무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교육의 효과이다. 대졸자에 비해 중졸미만이나 고졸미만의 경우 사무직보다 자영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상식에 부합된다. 반면 초대졸미만이나 대졸미만의 경우 대졸자에 비해 자영자보다 사무직이 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부표 2>에 제시한 교육수준과 최초계층 사이의 관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3)]

다른 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성별 차이는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을 포함시킨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자영자보다 사무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반면, 교육의 효과를 제외할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영자보다 사무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 또한 취업전 일반경력이 길수록 여자의 경우에 계수값의 크기는 다르지만 교육의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사무직이 될 확률을 낮추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제외한 경우에만 사무직이 될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계층별로는 현재 40세 미만인 층 남자에서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만 자영자보다 사무직이 될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표 7> logit(사무직/자영자) (최초계층, 전체/남/여)

| 변수명 | 전체 | | 남자 | | 여자 | |
|---|---|---|---|---|---|---|
| | 모델1 | 모델2 | 모델1 | 모델2 | 모델1 | 모델2 |
| 상수항 | 1.484 (0.193) *** | 3.492 (0.146) *** | 0.929 (0.285) ** | 3.258 (0.212) *** | 2.191 (0.272) *** | 3.706 (0.211) *** |
| 성별(여자) | | | | | | |
| 남자 | -0.186 (0.053) *** | 0.164 (0.047) *** | | | | |
| 연령(40세 이상) | | | | | | |
| 40세 미만 | 0.018 (0.082) | -0.271 (0.077) *** | -0.049 (0.120) | -0.410 (0.111) *** | 0.083 (0.116) | -0.114 (0.109) |
| 취업 전 일반경력 | -0.003 (0.001) *** | -0.009 (0.001) *** | 0.000 (0.001) | -0.007 (0.001) *** | -0.006 (0.001) *** | -0.011 (0.001) *** |
| 교육(대졸이상) | | | | | | |
| 중졸미만 | -2.182 (0.207) *** | | -2.265 (0.293) *** | | -1.425 (0.289) *** | |
| 고졸미만 | -1.514 (0.138) *** | | -1.497 (0.209) *** | | -1.233 (0.186) *** | |
| 초대졸미만 | 0.379 (0.093) *** | | 0.007 (0.135) | | 0.631 (0.131) *** | |
| 대졸미만 | 1.325 (0.161) *** | | 1.403 (0.227) *** | | 1.022 (0.227) *** | |
| 부모계층 (자영자) | | | | | | |
| 농업 | -0.115 (0.085) | -0.365 (0.081) *** | 0.070 (0.127) | -0.222 (0.119) | -0.384 (0.120) ** | -0.552 (0.114) *** |
| 생산직 | 0.395 (0.140) ** | 0.134 (0.136) | 0.150 (0.194) | -0.204 (0.186) | 0.592 (0.211) ** | 0.449 (0.208) * |
| 사무직 | 0.259 (0.143) | 0.576 (0.138) | 0.538 (0.231) * | 0.951 (0.223) *** | 0.096 (0.187) | 0.291 (0.184) |
| 고용주 | -0.252 (0.136) | 0.030 (0.131) | -0.297 (0.209) | 0.029 (0.200) | -0.109 (0.183) | 0.055 (0.180) |
| obs | 6051 | 6051 | 3331 | 3331 | 2720 | 2720 |
| -2log likelihood | 10871.65 | 12176.60 | 6065.0 | 6915.63 | 4624.68 | 5045.0 |
| chi-sq | 9498.04 | 9177.12 | 5296.42 | 5056.16 | 4019.65 | 3905.0 |
| df | 15402 | 13014 | 8412 | 6951 | 6960 | 6045 |
| p-value | 1.0 | 1.0 | 1.0 | 1.0 | 1.0 | 1.0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다음에는 고용주가 될 확률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자(<표 8>). 부모의 계층이 자녀

3) 이는 본 논문의 주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뒤에서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들과 종합해 볼 때 자영자층이 사무직보다 더 고용의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가 자영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될 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의미한 것은 교육을 포함시키지 않은 모형에서 전체와 남자의 경우 부모가 농업종사자일 때 자영자보다 고용주가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점이다. 교육의 효과도 다른 경우에 비해 별로 유의미하지 않은데, 중졸미만의 경우에 대졸자보다 고용주가 될 확률이 자영자가 될 확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정도이다. 일반경력 및 연령계층의 효과는 별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성의 효과는 상당히 유의미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자영자보다 고용주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8> logit(고용주/자영자) (최초계층, 전체/남/여)

| 변수명 | 전체 | | 남자 | | 여자 | |
|---|---|---|---|---|---|---|
| | 모델1 | 모델2 | 모델1 | 모델2 | 모델1 | 모델2 |
| 상수항 | -1.352 (0.273) *** | -0.570 (0.220) ** | -0.778 (0.342) * | 0.414 (0.264) | -2.465 (0.580) *** | -1.549 (0.437) *** |
| 성별(여자) | | | | | | |
| 남자 | 0.677 (0.091) *** | 0.860 (0.085) *** | | | | |
| 연령(40세 이상) | | | | | | |
| 40세 미만 | 0.071 (0.120) | -0.069 (0.116) | -0.066 (0.149) | -0.270 (0.143) | 0.303 (0.240) | 0.140 (0.232) |
| 취업전 일반경력 | 0.001 (0.001) | -0.001 (0.001) | 0.002 (0.001) | -0.002 (0.001) * | 0.002 (0.002) | -0.001 (0.001) |
| 교육(대졸이상) | | | | | | |
| 중졸미만 | -1.036 (0.244) *** | | -1.477 (0.302) *** | | -1.062 (0.483) * | |
| 고졸미만 | -0.284 (0.163) | | -0.457 (0.212) * | | -0.100 (0.296) | |
| 초대졸미만 | -0.011 (0.131) | | -0.086 (0.160) | | 0.109 (0.274) | |
| 대졸미만 | 0.244 (0.238) | | 0.500 (0.288) | | 0.066 (0.543) | |
| 부모계층 (자영자) | | | | | | |
| 농업 | -0.196 (0.127) | -0.331 (0.123) ** | -0.127 (0.159) | -0.313 (0.155) * | -0.186 (0.256) | -0.318 (0.245) |
| 생산직 | 0.136 (0.213) | -0.034 (0.211) | -0.026 (0.255) | -0.260 (0.251) | 0.449 (0.435) | 0.293 (0.431) |
| 사무직 | 0.051 (0.206) | 0.249 (0.202) | 0.212 (0.279) | 0.490 (0.273) | 0.154 (0.381) | 0.291 (0.374) |
| 고용주 | 0.062 (0.193) | 0.228 (0.190) | 0.044 (0.251) | 0.255 (0.245) | -0.053 (0.381) | 0.152 (0.369) |
| obs | 6051 | 6051 | 3331 | 3331 | 2720 | 2720 |
| -2log likelihood | 10871.65 | 12176.60 | 6065.0 | 6915.63 | 4624.68 | 5045.0 |
| chi-sq | 9498.04 | 9177.12 | 5296.42 | 5056.16 | 4019.65 | 3905.0 |
| df | 15402 | 13014 | 8412 | 6951 | 6960 | 6045 |
| p-value | 1.0 | 1.0 | 1.0 | 1.0 | 1.0 | 1.0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 4. 세대간 계층이동과 세대내 유동성

이제 자녀의 현재 계층 귀속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세대간 계층이동과 세대내 유동성을 살펴보자. 우선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현재 계층 귀속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가 <표 9>을 이용해서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최초 계층에 비해서 현재 계층에서 사무직과 생산

직이 줄고, 고용주와 자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제외하면 <표 9>의 결과와 최초 계층 귀속과 부모 계층의 관계를 살펴본 <표 5>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재의 계층귀속이 최초의 계층귀속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현재 계층과 최초 계층을 비교한 <부표 4>의 결과는 실제로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남자보다도 여자에게서 이러한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표 9> 부모계층과 본인계층의 상관관계

(단위: 명, %)

| 본인 \ 부모 | | 농업 | 사무직 | 생산직 | 고용주 | 자영자 | 계 |
|---|---|---|---|---|---|---|---|
| 전체 | 사무직 | 767 (35.9) | 394 (18.4) | 365 (17.1) | 268 (12.5) | 344 (16.1) | 2,138 (28.6) |
| | 생산직 | 1,922 (58.7) | 213 ( 6.5) | 545 (16.6) | 200 ( 6.1) | 397 (12.1) | 3,277 (43.8) |
| | 고용주 | 273 (48.2) | 70 (12.4) | 59 (10.4) | 74 (13.1) | 90 (15.9) | 566 ( 7.6) |
| | 자영자 | 943 (63.1) | 108 ( 7.2) | 138 ( 9.2) | 126 ( 8.4) | 180 (12.0) | 1,495 (20.0) |
| | 계 | 3,905 (52.2) | 785 (10.5) | 1,107 (14.8) | 668 ( 8.9) | 1,011 (13.5) | 7,476 (100.0) |
| | $\chi^2(12) = 511.1,\ p=0.001$ | | | | | | |
| 남성 | 사무직 | 478 (43.4) | 207 (18.8) | 152 (13.8) | 117 (10.6) | 148 (13.4) | 1,102 (25.8) |
| | 생산직 | 1,093 (55.6) | 133 ( 6.8) | 375 (19.1) | 119 ( 6.0) | 249 (12.7) | 1,969 (46.0) |
| | 고용주 | 226 (49.6) | 53 (11.6) | 47 (10.3) | 54 (11.8) | 76 (16.7) | 456 (10.7) |
| | 자영자 | 461 (61.2) | 56 ( 7.4) | 75 (10.0) | 65 ( 8.6) | 96 (12.8) | 753 (17.6) |
| | 계 | 2,258 (52.8) | 449 (10.5) | 649 (15.2) | 355 ( 8.3) | 569 (13.3) | 4,280(100.0) |
| | $\chi^2(12) = 210.4,\ p=0.001$ | | | | | | |
| 여성 | 사무직 | 289 (27.9) | 187 (18.1) | 213 (20.6) | 151 (14.6) | 196 (18.9) | 1,036 (32.4) |
| | 생산직 | 829 (63.4) | 80 ( 6.1) | 170 (13.0) | 81 ( 6.2) | 148 (11.3) | 1,308 (40.9) |
| | 고용주 | 47 (42.7) | 17 (15.5) | 12 (10.9) | 20 (18.2) | 14 (12.7) | 110 ( 3.4) |
| | 자영자 | 482 (65.0) | 52 ( 7.0) | 63 ( 8.5) | 61 ( 8.2) | 84 (11.3) | 742 (23.2) |
| | 계 | 1,647(51.5) | 336 (10.5) | 458 (14.3) | 313 ( 9.8) | 442 (13.8) | 3,196(100.0) |
| | $\chi^2(12) = 395.2,\ p=0.001$ | | | | | | |

자료 : KLIPS (1차년도)

여기에서도 우리는 최초 계층 귀속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현재 계층 귀속의 결정요인에 대해 로짓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로짓분석의 기본모형은 앞에서 최초 계층의 결정요인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종속변수가 현재 계층으로 바뀌었고,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독립변수로 추가되었다. 독립변수로 추가된 변수들은 혼인상태와 가구주 여부, 현재 시점까지의 총취업기간, 최초취업시까지의 일반경력을 대신한 현재시점까지의 일반경력, 조사시점에서의 자산소득이다. 자산소득의 경우 스톡으로서의 자산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대리하는 변수로서 포함시킨 것이다.

특히 최초 계층도 중요한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부모의 계층이 최초의 계층귀속에 미치는 영향과 별개로 현재의 계층귀속에도 독자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는가

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와 남자, 여자 세 개의 표본에 대해 각각 네 개의 모형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는 최초취업계층과 교육수준이 모두 독립변수에 포함된 경우, 두 번째는 교육수준을 제외하고 최초취업계층은 포함된 경우, 세 번째는 최초취업계층을 제외하고 교육수준은 포함한 경우, 네 번째는 교육수준과 최초취업계층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항로짓분석의 경우 추정결과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 계층과 최초 계층의 효과만을 요약해서 살펴보고, 전체 모형의 추정결과는 <부표 5>  <부표 13>에 수록하였다.

<표 10>에는 자영자에 대비해서 현재 생산직이 될 확률의 결정요인이 요약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 최초계층을 모두 포함했거나, 최초계층이 포함된 모형에서는 부모가 고용주였던 경우 현재 생산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다. <부표 4>에 의하면 최초계층에 비해 전체적으로 현재 계층에서 고용주와 자영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데 이때 부모가 고용주 였던 경우는 최초 계층의 효과를 제외하면 생산직의 가기보다, 자영자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최초계층의 효과를 제외하고 교육의 효과만을 살펴본 결과는 교육의효과까지도 제외한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다. 최초계층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부모계층이 농업이거나 생산직인 경우 현재 생산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모가 고용주였던 경우를 제외하면 최초의 계층귀속이 현재 생산직이 될 확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비해 최초계층의 효과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자의 경우에는 최초계층을 제외한 경우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부모계층이 유의한 경우가 더 적게 나타난다.

<표 10> 현재 생산직으로의 계층귀속에 대한 부모계층의 영향(전체/남/녀)

| | | 교육·최초계층포함 | 최초계층 포함 | 교육 포함 | 교육·최초계층제외 |
|---|---|---|---|---|---|
| 전체 | 농 업 | 0.093(0.070) | 0.119(0.068) | 0.165(0.061)** | 0.229(0.058)*** |
| | 생산직 | 0.166(0.102) | 0.185(0.101) | 0.226(0.092)* | 0.272(0.092)** |
| | 사무직 | -0.081(0.122) | -0.138(0.121) | -0.047(0.108) | -0.138(0.106) |
| | 고용주 | -0.264(0.122)* | -0.283(0.121)* | -0.322(0.108)** | -0.369(0.106)*** |
| 남자 | 농 업 | 0.105(0.092) | 0.105(0.090) | 0.213(0.082)** | 0.247(0.079)** |
| | 생산직 | 0.217(0.134) | 0.208(0.132) | 0.245(0.124)* | 0.270(0.122)* |
| | 사무직 | -0.137(0.165) | -0.155(0.163) | -0.058(0.146) | -0.100(0.144) |
| | 고용주 | -0.281(0.161) | -0.274(0.159) | -0.322(0.144)* | -0.348(0.141)* |
| 여자 | 농 업 | 0.103(0.109) | 0.179(0.106) | 0.116(0.091) | 0.237(0.088)** |
| | 생산직 | 0.032(0.161) | 0.105(0.158) | 0.170(0.142) | 0.264(0.140) |
| | 사무직 | 0.059(0.188) | -0.076(0.185) | -0.031(0.163) | -0.200(0.158) |
| | 고용주 | -0.245(0.195) | -0.311(0.190) | -0.330(0.166)* | -0.427(0.163)**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표 11>에는 사무직이 될 확률의 결정요인이 소개되어 있다. 최초계층과 교육수준을 모두

포함한 경우 유의미한 경우는 남자의 경우 부모가 고용주인 경우 사무직이 될 확률이 자영자가 될 확률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이다. 이를 생산직이 될 확률의 추정결과와 같이 고려해서 해석하면 부모가 고용주인 경우는 남자자녀가 피용자가 될 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여자의 경우에는 피용자 가운데 생산직이 될 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만을 제외할 경우 최초 계층 귀속의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여자로서 부모가 농업종사자이거나 생산직인 경우 사무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고, 사무직인 경우에는 사무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 반면 남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계층 귀속이 미치는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초 취업 계층을 제외하고 교육만을 포함한 경우에 남자에서 부모가 고용주였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가 더 크다. 교육수준과 최초계층을 모두 제외하면 전체, 남자, 여자 모두 부모가 농업종사자인 경우 현재 사무직이 될 확률이 자영자가 될 확률보다 유의미하게 낮고, 부모가 사무직이었던 경우에는 현재 사무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4)]

<표 11> 현재 사무직으로의 계층귀속에 대한 부모계층의 영향(전체/남/녀)

| | 부모계층 | 교육·최초계층포함 | 최초계층 포함 | 교육 포함 | 교육·최초계층제외 |
|---|---|---|---|---|---|
| 전체 | 농 업 | 0.005(0.080) | -0.173(0.077)*. | -0.041(0.067) | -0.345(0.063)*** |
| | 생산직 | -0.044(0.114) | -0.166(0.112) | 0.069(0.100) | -0.131(0.095) |
| | 사무직 | 0.107(0.119) | 0.297(0.118)* | 0.193(0.103) | 0.513(0.099)*** |
| | 고용주 | -0.197(0.122) | -0.031(0.120) | -0.227(0.105)* | 0.047(0.101) |
| 남자 | 농 업 | 0.109(0.109) | -0.094(0.104) | 0.126(0.093) | -0.223(0.085)** |
| | 생산직 | 0.139(0.162) | -0.031(0.157) | 0.142(0.141) | -0.137(0.131) |
| | 사무직 | 0.045(0.165) | 0.268(0.162) | 0.217(0.145) | 0.609(0.135)*** |
| | 고용주 | -0.468(0.172)** | -0.248(0.168) | -0.436(0.149)** | -0.074(0.139) |
| 여자 | 농 업 | -0.125(0.121) | -0.250(0.117)* | -0.245(0.100)* | -0.468(0.095)*** |
| | 생산직 | -0.308(0.164) | -0.362(0.163)* | -0.079(0.144) | -0.180(0.141) |
| | 사무직 | 0.259(0.177) | 0.384(0.176)* | 0.225(0.150) | 0.421(0.147)** |
| | 고용주 | 0.135(0.179) | 0.210(0.178) | 0.043(0.150) | 0.200(0.149)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다음으로는 현재 고용주가 될 확률의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자(<표 12>). 현재 고용주가 될 확률에 대해 최초계층귀속에 무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계층이 농업종사자였던 경우이다. 교육수준이나 최초계층의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은 부모계층이 농업종사자였던 경우 뿐이다. 부모계층이 생산직이나 사무직이었더라도 자영자보다 고용주가 될 확률에는 별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 이를 부모가 고용주였던 경우 자영자보다 생산직이나 사무직이 될 확률에 미치는 효과와 비교해 보면 고용주와 자영자가 상대적으로

4) 다른 변수들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는다. 다만 가구의 부를 대신하는 대리변수로 포함시킨 가구의 1인당 평균자산소득의 경우 최초계층을 제외한 경우에 남자에서 자영자보다 생산직이 될 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른 경우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까운 계층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현재 고용주로의 계층귀속에 대한 부모계층의 영향(전체/남/녀)

| | 부모계층 | 교육·최초계층포함 | 최초계층 포함 | 교육 포함 | 교육·최초계층제외 |
|---|---|---|---|---|---|
| 전체 | 농 업 | -0.217(0.101)* | -0.336(0.099)*** | -0.204(0.088)* | -0.410(0.086)*** |
| | 생산직 | -0.042(0.154) | -0.152(0.153) | -0.005(0.141) | -0.151(0.138) |
| | 사무직 | 0.006(0.156) | 0.142(0.154) | 0.003(0.138) | 0.214(0.135) |
| | 고용주 | -0.057(0.155) | 0.064(0.153) | 0.030(0.135) | 0.224(0.133) |
| 남자 | 농 업 | -0.125(0.120) | -0.255(0.117)* | -0.068(0.106) | -0.302(0.102)** |
| | 생산직 | 0.076(0.183) | -0.057(0.180) | 0.047(0.168) | -0.136(0.164) |
| | 사무직 | -0.097(0.194) | 0.063(0.189) | -0.028(0.172) | 0.222(0.167) |
| | 고용주 | -0.267(0.190) | -0.123(0.187) | -0.163(0.168) | 0.080(0.163) |
| 여자 | 농 업 | -0.306(0.215) | -0.418(0.205)* | -0.384(0.185)* | -0.583(0.176)** |
| | 생산직 | -0.261(0.325) | -0.371(0.322) | -0.112(0.289) | -0.265(0.285) |
| | 사무직 | 0.293(0.286) | 0.389(0.280) | 0.193(0.251) | 0.368(0.246) |
| | 고용주 | 0.249(0.289) | 0.392(0.276) | 0.338(0.242) | 0.562(0.234)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이제 세대내에서의 유동성과 관련된 최초계층과 현재계층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앞에서 지적한대로 최초의 계층귀속과 현재의 계층 사이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표 4>).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가 실제로 최초 계층이 현재의 계층귀속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층귀속에 대한 로짓분석에서 최초계층이 현재계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3>에는 최초의 계층귀속이 현재의 계층귀속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전체 추정결과는 마찬가지로 <부표 5> <부표 13>에 소개되어 있다.

우선 생산직으로의 귀속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자. 최초계층이 생산직이었던 경우는 전체표본이나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현재 자영자보다 생산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 그러나 사무직이나 고용주였던 경우는 자영자보다 생산직이 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

다음으로 현재 사무직이 될 확률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최초에 사무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현재에도 사무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최초에 생산직으로 취업한 경우 자영자보다 사무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점이다. 이는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생산직에서 자영자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될 확률을 보자.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최초에 고용주였던 경우에는 전체표본이나 남, 녀 모두에서 자영자보다 고용주로 있을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역시 새로운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최초에 생산직이었던 경우 자영자보다 고용주로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생산직에서 자영자로 이동하는 것보다, 고용주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표본과 남자에

서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서 사무직이었던 경우 자영자보다 고용주가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초에 생산직이었던 경우와 비교해보면 생산직의 경우 고용주보다 자영자로 이동할 확률이 높은 반면 사무직 남자의 경우 자영자보다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자영부문으로의 이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표 13> 현재의 계층 귀속에 최초 계층이 미치는 효과(전체/남/녀)

| 현재 | 최초계층 | 전체 | | 남자 | | 여자 | |
|---|---|---|---|---|---|---|---|
| | | 교육포함 | 교육제외 | 교육포함 | 교육제외 | 교육포함 | 교육제외 |
| 생산직 | 생산직 | 1.132(0.075)*** | 1.166(0.073)*** | 0.992(0.094)*** | 1.001(0.092)*** | 1.175(0.147)*** | 1.255(0.144)*** |
| | 사무직 | 0.179(0.096) | 0.145(0.094) | -0.089(0.134) | -0.081(0.130) | 0.281(0.167) | 0.223(0.162) |
| | 고용주 | 0.003(0.162) | -0.009(0.161) | -0.173(0.183) | -0.188(0.182) | 0.469(0.368) | 0.448(0.365) |
| 사무직 | 생산직 | -0.006(0.101) | -0.247(0.096)* | -0.312(0.122)* | -0.560(0.117)*** | 0.533(0.245)* | 0.337(0.238) |
| | 사무직 | 1.897(0.100)*** | 2.124(0.098)*** | 1.783(0.129)*** | 2.127(0.123)*** | 2.067(0.239)*** | 2.193(0.235)*** |
| | 고용주 | -0.104(0.198) | -0.019(0.1930 | -0.242(0.214) | -0.120(0.205) | -0.410(0.631) | -0.332(0.623) |
| 고용주 | 생산직 | -0.262(0.101)** | -0.394(0.099)*** | -0.286(0.117)* | -0.420(0.114)*** | -0.639(0.229)** | -0.758(0.221)*** |
| | 사무직 | 0.217(0.114) | 0.387(0.110)*** | 0.219(0.141) | 0.442(0.136)** | 0.139(0.226) | 0.204(0.215) |
| | 고용주 | 1.793(0.146) | 1.843(0.144)***- | 1.474(0.163)*** | 1.516(0.159)*** | 2.865(0.348)*** | 2.950(0.345)***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 5. 부모의 계층이 피용자의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효과

동일한 사무직과 생산직이라도 부모의 계층에 따라 교육수준도 다르고, 나아가서 일자리의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녀별로 40세를 전후로 현재 계층별로 부모 계층별 평균 연령과 교육수준, 월임금수준의 평균값을 살펴본 것이 <표 14>와 <표 15>이다.

<표 14> 사무직과 생산직의 부모계층별 평균 교육, 연령, 월임금(남자)

(단위 : 세, 년, 만원)

| 본인계층 | | 사무직 | | | | | 생산직 | | | | |
|---|---|---|---|---|---|---|---|---|---|---|---|
| 부모계층 | | 농업 | 사무직 | 생산직 | 고용주 | 자영자 | 농업 | 사무직 | 생산직 | 고용주 | 자영자 |
| 평균 연령 | 40세미만 | 32.6 | 30.8 | 29.1 | 31.1 | 30.2 | 31.6 | 28.1 | 26.9 | 28.3 | 28.1 |
| | 40세이상 | 50.7 | 47.8 | 47.7 | 47.8 | 49.5 | 51.7 | 49.2 | 48.0 | 48.4 | 50.3 |
| 교육 기간 | 40세미만 | 14.6 | 15.3 | 14.1 | 15.1 | 14.6 | 11.6 | 13.6 | 12.1 | 13.0 | 11.9 |
| | 40세이상 | 13.7 | 15.7 | 14.9 | 15.3 | 13.9 | 8.8 | 11.7 | 9.6 | 11.9 | 10.0 |
| 임금 수준 | 40세미만 | 145.6 | 146.9 | 117.3 | 156.6 | 143.7 | 112.2 | 106.2 | 101.8 | 103.4 | 108.4 |
| | 40세이상 | 190.4 | 221.2 | 199.0 | 222.8 | 180.3 | 100.8 | 113.2 | 112.6 | 129.7 | 108.1 |

자료 : KLIPS (1차년도)

<표 14>는 남자의 경우 부모가 사무직이거나 고용주인 경우 다른 계층이었던 경우에 비해 교육수준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로부터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5> 사무직과 생산직의 부모계층별 평균 교육, 연령, 월임금(여자)

(단위 : 세, 년, 만원)

| 본인계층 | | 사무직 | | | | | 생산직 | | | | |
|---|---|---|---|---|---|---|---|---|---|---|---|
| 부모계층 | | 농업 | 사무직 | 생산직 | 고용주 | 자영업 | 농업 | 사무직 | 생산직 | 고용주 | 자영업 |
| 평균 | 40세미만 | 27.6 | 27.4 | 25.6 | 27.3 | 26.1 | 31.7 | 26.7 | 24.8 | 25.9 | 27.1 |
| 연령 | 40세이상 | 47.5 | 49.3 | 44.4 | 46.9 | 45.2 | 49.9 | 47.0 | 48.8 | 49.4 | 49.7 |
| 교육 | 40세미만 | 12.9 | 14.4 | 13.4 | 14.0 | 13.5 | 10.9 | 12.6 | 11.6 | 12.6 | 11.9 |
| 기간 | 40세이상 | 11.1 | 13.4 | 13.3 | 13.9 | 13.1 | 6.6 | 9.8 | 8.1 | 9.9 | 7.6 |
| 임금 | 40세미만 | 95.8 | 107.1 | 88.5 | 94.8 | 89.3 | 59.2 | 73.8 | 61.0 | 74.0 | 67.0 |
| 수준 | 40세이상 | 113.7 | 116.0 | 113.4 | 137.6 | 126.4 | 56.9 | 56.6 | 60.5 | 62.2 | 57.8 |

자료 : KLIPS (1차년도)

임금수준의 경우에도 남자는 부모가 사무직이거나 고용주였던 경우 다른 계층이었던 경우에 비해 임금수준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표 14> ). 특히 현재 사무직인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다. 역시 <표 15>에서 여자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현상이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4>와 <표 15>의 결과는 동일한 생산직이나 사무직이라도 부모의 계층에 따라서 일자리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이러한 효과가 교육을 매개로 해서만 나타나는지, 교육의 효과를 통제해도 나타나는지는 계층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와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이를 위해 <표 16>과 <표 17>에는 현재 피용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추정모형은 통상적인 인적자본론의 가정하에서 임금함수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모형이다. 여기에 부모의 계층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또한 교육을 매개로 부모계층의 효과가 전달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형도 같이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표 16>에는 전체표본과 남자, 여자를 나누어서 추정한 결과가, <표 17>에는 현재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나누어서 추정한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우선 <표 16>과 <표 17>에서 부모의 계층이 현재의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로 교육을 매개로 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에서 5% 수준에서 유의한 부모의 계층변수는 없다. 다만 전체표본에서 고용주, 여자표본에서 사무직의 경우 10%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임금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을 제외할 경우에는 부모의 계층이 몇가지 경우에 유의미한 결과를 추가적으로 나타낸다. 우선 전체 표본에서 부모가 농업종사자였던 경우는 현재 임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사무직이거나, 고용주인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여자의 경우에는 전체 표본과 결과가 유사하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고용주만이 유의미하게 임금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표 17> )에서는 사무직에서 교육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부모가 고용주인 경우 유의미하게 임금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다만 부모가 사무직이었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모가 고용주인 경우 유의미하게 현재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여자이면서 사무직인 경우에는 부모가 사무직일 경우 임금수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 부모가 생산직이었던 경우에 자녀세대에서 여자가 사무직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에 대한 대답의 하나를 제공해준다. 즉 사무직으로 이동하더라도 부모가 사무직인 경우에 비해 하위의 사무직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표 16> 임금 회귀분석 (로그임금, 전체/남/여)

| 변수명 | 전체 | | 남자 | | 여자 | |
|---|---|---|---|---|---|---|
| | 모델1 | 모델2 | 모델1 | 모델2 | 모델1 | 모델2 |
| 상수항 | 7.665 (0.065) *** | 7.918 (0.056) *** | 7.843 (0.084) *** | 8.093 (0.071) *** | 7.530 (0.110) *** | 7.927 (0.092) *** |
| 일반경력 | 0.015 (0.004) *** | 0.005 (0.004) | 0.033 (0.006) *** | 0.023 (0.006) *** | 0.012 (0.005) * | -0.002 (0.005) |
| 경력sq | 0.000 (0.000) *** | 0.000 (0.000) *** | -0.001 (0.000) *** | -0.001 (0.000) *** | 0.000 (0.000) * | 0.000 (0.000) |
| 취업기간 | 0.011 (0.004) ** | 0.010 (0.004) ** | -0.006 (0.005) | -0.006 (0.005) | 0.016 (0.006) ** | 0.016 (0.006) ** |
| 기간sq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 0.000 (0.000) * | 0.000 (0.000) * | 0.000 (0.000) * |
| 근속년수 | 0.025 (0.004) *** | 0.028 (0.004) *** | 0.025 (0.004) *** | 0.027 (0.005) *** | 0.027 (0.007) *** | 0.031 (0.007) *** |
| 근속sq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 성별(여자) | | | | | | |
| 남자 | 0.211 (0.019) *** | 0.271 (0.019) *** | | | | |
| 혼인(기혼) | | | | | | |
| 미혼 | -0.113 (0.026) *** | -0.197 (0.026) *** | -0.138 (0.031) *** | -0.208 (0.032) *** | -0.082 (0.047) | -0.185 (0.048) *** |
| 교육(중졸미만) | | | | | | |
| 고졸미만 | -0.011 (0.039) | | -0.025 (0.054) | | 0.032 (0.059) | |
| 초대졸미만 | 0.159 (0.038) *** | | 0.120 (0.052) * | | 0.230 (0.060) *** | |
| 대졸미만 | 0.246 (0.045) *** | | 0.202 (0.060) *** | | 0.319 (0.074) *** | |
| 대졸이상 | 0.474 (0.045) *** | | 0.413 (0.059) *** | | 0.610 (0.075) *** | |
| 근로시간(풀타임) | | | | | | |
| 파트타임 | 0.132 (0.028) *** | 0.136 (0.029) *** | 0.094 (0.041) * | 0.085 (0.042) * | 0.176 (0.038) | 0.193 (0.039) *** |
| 종사상지위 (일용직) | | | | | | |
| 상용직 | 0.001 (0.035) | 0.016 (0.036) | 0.062 (0.046) | 0.078 (0.048) | -0.051 (0.054) | -0.049 (0.057) |
| 임시직 | -0.051 (0.043) | -0.028 (0.045) | -0.004 (0.061) | 0.010 (0.063) | -0.072 (0.062) | -0.049 (0.065) |
| 기업규모 (100인미만) | | | | | | |
| -300인 | 0.013 (0.030) | 0.028 (0.031) | -0.005 (0.036) | 0.011 (0.037) | 0.073 (0.054) | 0.082 (0.056) |
| -500인 | 0.107 (0.044) * | 0.125 (0.046) ** | 0.120 (0.056) * | 0.154 (0.058) ** | 0.117 (0.073) | 0.097 (0.077) |
| -1000인 | 0.153 (0.044) *** | 0.188 (0.046) *** | 0.143 (0.055) * | 0.178 (0.057) ** | 0.189 (0.073) ** | 0.237 (0.076) ** |
| 1000이상 | 0.185 (0.025) *** | 0.202 (0.026) *** | 0.201 (0.032) *** | 0.235 (0.033) *** | 0.175 (0.039) *** | 0.156 (0.041) *** |
| 노조유무(무) | | | | | | |
| 노조유 | -0.009 (0.021) *** | -0.018 (0.022) | -0.021 (0.027) | -0.035 (0.028) | 0.005 (0.036) | -0.004 (0.037) |
| 본인계층(생산서비스) | | | | | | |
| 사무관리직 | 0.262 (0.021) | 0.401 (0.019) *** | 0.238 (0.026) *** | 0.379 (0.023) *** | 0.308 (0.036) *** | 0.433 (0.035) *** |

| | | | | | | |
|---|---|---|---|---|---|---|
| 부모계층(자영자) | | | | | | |
| 농업 | -0.026 (0.022) | -0.052 (0.023)* | -0.024 (0.028) | -0.044 (0.029) | -0.032 (0.037) | -0.066 (0.038) |
| 생산직 | -0.023 (0.027) | -0.036 (0.028) | -0.048 (0.035) | -0.057 (0.036) | 0.020 (0.042) | 0.003 (0.044) |
| 사무직 | 0.020 (0.029) | 0.074 (0.030)* | -0.016 (0.037) | 0.035 (0.038) | 0.091 (0.047) | 0.150 (0.049)** |
| 고용주 | 0.054 (0.032) | 0.101 (0.033)** | 0.040 (0.042) | 0.085 (0.043)* | 0.068 (0.049) | 0.119 (0.051)* |
| adj-$R^2$ | 0.5053 | 0.4659 | 0.4566 | 0.4196 | 0.4759 | 0.4209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표 17> 임금 회귀분석 (로그임금, 생산직/사무직)

| 변수명 | 생산직 | | 사무직 | |
|---|---|---|---|---|
| | 모델1 | 모델2 | 모델1 | 모델2 |
| 상수항 | 7.780 (0.081)*** | 7.941 (0.069)*** | 7.590 (0.203)*** | 8.072 (0.161)*** |
| 일반경력 | 0.012 (0.004)** | 0.004 (0.004) | 0.013 (0.006)* | -0.001 (0.007) |
| 경력sq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 취업기간 | 0.007 (0.004) | 0.008 (0.004) | 0.021 (0.007)** | 0.022 (0.007)** |
| 기간sq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 근속년수 | 0.030 (0.006)*** | 0.031 (0.006)*** | 0.019 (0.006)*** | 0.023 (0.006)*** |
| 근속sq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0.000) |
| 성별(여자) | | | | |
| 남자 | 0.291 (0.027)*** | 0.315 (0.027)*** | 0.112 (0.027)*** | 0.205 (0.028)*** |
| 혼인(기혼) | | | | |
| 미혼 | -0.103 (0.036)** | -0.151 (0.035)*** | -0.144 (0.037)*** | -0.246 (0.039)*** |
| 교육(중졸미만) | | | | |
| 고졸미만 | -0.046 (0.039) | | 0.108 (0.155) | |
| 초대졸미만 | 0.083 (0.040)* | | 0.263 (0.135) | |
| 대졸미만 | 0.146 (0.056)** | | 0.383 (0.137)*** | |
| 대졸이상 | 0.312 (0.063)** | | 0.626 (0.136)*** | |
| 근로시간(풀타임) | | | | |
| 파트타임 | 0.080 (0.033)* | 0.076 (0.033) | 0.247 (0.050) | 0.259 (0.053)*** |
| 종사상지위(일용직) | | | | |
| 상용직 | -0.028 (0.035) | -0.025 (0.036) | 0.215 (0.142) | 0.285 (0.151) |
| 임시직 | -0.075 (0.045) | -0.068 (0.046) | 0.124 (0.154) | 0.213 (0.163) |
| 기업규모(100인미만) | | | | |
| -300인 | -0.007 (0.039) | 0.011 (0.039) | 0.079 (0.047) | 0.082 (0.050) |
| -500인 | 0.140 (0.062)* | 0.164 (0.063)** | 0.098 (0.063) | 0.099 (0.067) |
| -1000인 | 0.193 (0.062)** | 0.229 (0.062)*** | 0.133 (0.063)* | 0.170 (0.067)* |
| 1000인이상 | 0.257 (0.038)*** | 0.295 (0.038)*** | 0.143 (0.033)*** | 0.135 (0.035)*** |
| 노조유무(무) | | | | |
| 노조유 | -0.025 (0.030) | -0.035 (0.031) | 0.026 (0.031) | 0.018 (0.032) |
| 부모계층(자영자) | | | | |
| 농업 | -0.026 (0.030) | -0.040 (0.030) | -0.014 (0.033) | -0.048 (0.035) |
| 생산직 | -0.009 (0.037) | -0.014 (0.037) | -0.040 (0.039) | -0.058 (0.041) |

| | | | | |
|---|---|---|---|---|
| 사무직 | 0.030 (0.047) | 0.069 (0.047) | 0.023 (0.038) | 0.077 (0.040) * |
| 고용주 | 0.021 (0.050) | 0.070 (0.050) | 0.069 (0.042) | 0.108 (0.045) * |
| adj- $R^2$ | 0.3647 | 0.3471 | 0.4534 | 0.3814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 6.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지난 40년간 급속하게 증가해 온 도시의 비농부문 취업자층의 세대간 재생산 구조와 동일 세대내에서 계층간 유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자료는 도시지역의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표본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 패널조사(KLIPS)의 1차년도 자료이다. 분석을 위해서 산업과 직종, 종사상 지위를 결합하여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최초 계층 및 현재 계층을 농업종사자, 생산직, 사무직, 고용주, 자영자의 다섯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자료에서 주의할 것은 자식의 계층별 분포가 도시지역 거주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부모의 계층별 분포는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모의 경우 주거지역이 도시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대간 계층이동과 세대내 유동성은 최초 및 현재의 계층 귀속을 결정하는 데 부모의 계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최초 계층이 현재의 계층 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항로짓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세대간 이동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난 주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다항로짓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자녀의 최초 계층과 부모 계층의 관계를 교차표를 이용해서 분석해 보면 고용주와 사무직의 경우 부모의 계층으로 이동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반면, 생산직과 자영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다항로짓분석(비교의 기준으로는 자영자를 사용)을 통해 자녀의 최초 계층 귀속에 부모의 계층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로 기능하는 것이 교육수준으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직업선택에서 학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초의 계층이 생산직인 경우 교육의 효과를 통제한 경우에 부모계층이 유의미하게 자녀의 최초계층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부모가 생산직인 경우뿐이다. 이는 부모가 생산직인 경우 유의미하게 자녀가 자영자보다 생산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을 포함시키지 않은 모형의 경우 여성에서 추정결과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고용주의 경우 유의미하게 자영자보다 생산직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

최초계층이 사무직인 경우 남자와 여자에 차이가 상당히 나타난다. 남자의 경우 교육을 포함한 경우나 포함하지 않은 경우 통계적인 유의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부모가 사무직인 경우 자영자보다 사무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반면 여자의 경우 부모가 생산직이거나 농업종사자인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생산직인 경우에는 자영자보다 사무직이 될 확률이 높아지지만 농업종사자인 경우 사무직보다 자영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

자녀가 자영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될 확률에 부모의 계층이 미치는 효과는 별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의미한 것은 교육을 포함시키지 않은 모형에서 전체와 남자의 경우 부모가 농업종사자일 때 자영자보다 고용주가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점이다.

현재의 계층 귀속에 부모의 계층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중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많은 경우에 최초계층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교육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등장한다. 또한

현재 계층 귀속의 결정요인으로 최초 계층을 포함한 경우에 최초 계층의 효과 때문에 부모의 계층이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생산직이 될 확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교육과 최초계층을 모두 포함했거나, 최초계층이 포함된 모형에서는 부모가 고용주였던 경우 현재 생산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다. 교차표에서 최초계층에 비해 전체적으로 현재 계층에서 고용주와 자영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데 이 때 부모가 고용주였던 경우는 생산직으로 이동하기보다, 자영자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함축한다. 최초계층의 효과를 제외하고 교육의 효과만을 살펴본 결과는 교육의 효과까지도 제외한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다. 최초계층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부모계층이 농업이거나 생산직인 경우 현재 생산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모의 계층은 최초의 계층 귀속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로 현재 생산직이 될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사무직 계층을 보면 최초계층과 교육수준을 모두 포함한 경우 유의미한 경우는 남자의 경우 부모가 고용주인 경우 사무직이 될 확률이 자영자가 될 확률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이다. 이를 생산직이 될 확률의 추정 결과와 같이 고려해서 종합해 보면 부모가 고용주인 경우는 남자 자녀가 피용자가 될 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여자의 경우에는 피용자 가운데 생산직이 될 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과 최초계층을 모두 제외하면 전체, 남자, 여자 모두 부모가 농업종사자인 경우 현재 사무직이 될 확률이 자영자가 될 확률보다 유의미하게 낮고, 부모가 사무직이었던 경우에는 현재 사무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

현재 고용주가 될 확률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현재 고용주가 될 확률에 대해 최초계층귀속에 무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계층이 농업종사자였던 경우이다. 교육수준이나 최초계층의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은 부모계층이 농업종사자였던 경우 뿐이다. 부모계층이 생산직이나 사무직이었더라도 자영자보다 고용주가 될 확률에는 별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 이를 부모가 고용주였던 경우 생산직이나 사무직이 될 확률에 미치는 효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고용주와 자영자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계층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농업종사자인 경우에 사무직보다는 자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의 또 다른 결과는 자영자 가운데 일부는 사무직보다 농업종사자에 가까운 계층임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세대내 유동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최초 계층에 비해서 현재 계층에서 사무직과 생산직이 줄고, 고용주와 자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차표를 통해 현재의 계층과 부모의 계층을 비교해 본 결과는 최초의 계층과 부모의 계층을 비교한 결과와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재의 계층귀속이 최초의 계층귀속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항로짓분석에서 현재 생산직으로의 귀속에 최초의 계층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초계층이 생산직이었던 경우는 전체표본이나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현재 자영자보다 생산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 그러나 사무직이나 고용주였던 경우는 자영자보다 생산직이 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최초에 사무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현재에도 사무직이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 또한 최초에 생산직으로 취업한 경우 자영자보다 사무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는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생산직에서 자영자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한다. 앞의 현

재 계층귀속에 대한 분석에서 자영자의 일부가 사무직보다 농업종사자에 가깝다는 시사점을 얻었지만 이 결과로부터는 사무직보다 생산직에 가까운 집단도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고용주에서도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최초에 고용주였던 경우에는 전체표본이나 남, 녀 모두에서 자영자보다 고용주로 있을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최초에 생산직이었던 경우 자영자보다 고용주로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생산직에서 자영자로 이동하는 것보다, 고용주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표본과 남자에서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서 사무직이었던 경우 자영자보다 고용주가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초에 생산직이었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생산직의 경우 고용주보다 자영자로 이동할 확률이 높은 반면 사무직 남자의 경우 자영자보다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생산직과 사무직 사이에 자영부문으로의 이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사무직이나 생산직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계층에 따라 현재 일자리의 질이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조사시점에 피용자로 취업해 있는 집단에 대해 임금함수를 추정해 보았다. 계층 귀속에 미치는 효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계층이 현재의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로 교육을 매개로 해서 나타난다. 교육수준을 포함한 모형에서 5% 수준에서 유의한 부모의 계층변수는 없다. 다만 전체표본에서 고용주, 여자표본에서 사무직의 경우 10%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임금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을 제외할 경우에는 부모가 농업종사자였던 경우는 현재 임금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사무직이거나, 고용주인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자의 경우에는 전체 표본과 결과가 유사하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고용주만이 유의미하게 임금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부모가 고용주인 경우 유의미하게 현재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여자이면서 사무직인 경우에는 부모가 사무직일 경우 임금수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부모가 생산직이었던 경우에 자녀세대에서 여자가 사무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가 사무직인 경우에 비해 하위의 사무직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자녀의 계층 귀속에 부모의 계층이 미치는 영향과, 세대내에서 최초의 직업선택이 현재의 계층 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세대간 계층이동에서 교육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점, 각 계층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현재의 계층 귀속에 최초의 직업선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계층간 이동의 가능성이 어려운 정도로부터 고용주, 자영자 일부, 사무직, 자영자 일부, 생산직의 순서로 도시취업자 계층에 서열이 나타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정책적인 함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세대간 계층이동에서 교육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층간 유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회가 계층간에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류재우 · 최호영(1999),「우리나라 자영업부문에 관한 연구」,『노동경제논집』, 제22권 제1호, 1999.6

박진도(1991),「공업화과정에서의 농촌노동력의 도시이동」, 이대근 · 박덕제 · 조우현 · 박진도,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력(II)』, 한국경제연구원

배진한(1977),『농촌노동력 유출과 노동시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신광영(1994)「세대간 계급이동」,『경제와 사회』, 통권 23호, 1994 가을,

차종천(1991),「남성세대간 사회이동에 관한 상호연관모형 분석」,『한국사회학』25집, 1991, 겨울

<부표 1> 부모계층과 자녀의 학력 사이의 관계

(단위: 명, %)

| | 중졸미만 | 중졸이상 | 고졸이상 | 초대졸이상 | 대졸이상 | 계 |
|---|---|---|---|---|---|---|
| 농업종사자 | 2,166(34.1) | 1,222(19.2) | 2,193(34.5) | 354(5.6) | 418(6.6) | 6,353(50.7) |
| 생산직 | 162(8.5) | 452(23.8) | 789(41.5) | 310(16.3) | 188(9.9) | 1,901(15.2) |
| 사무직 | 72(4.8) | 250(16.5) | 423(27.9) | 354(23.4) | 416(27.5) | 1,515(12.1) |
| 고용주 | 67(6.0) | 178(16.0) | 357(32.1) | 229(20.6) | 281(25.3) | 1,112(8.9) |
| 자영자 | 196(11.8) | 346(20.8) | 658(39.6) | 242(14.6) | 221(13.1) | 1,663(13.3) |
| 계 | 2,663(21.2) | 2,448(19.5) | 4,420(35.2) | 1,489(11.9) | 1524(12.2) | 12,544(100.0) |
| | $\chi^2(16) = 2230.8$ , p=0.001 | | | | | |

<부표 2> 학력과 최초계층 사이의 관계

(단위: 명, %)

| | 생산직 | 사무직 | 고용주 | 자영자 | 계 |
|---|---|---|---|---|---|
| 중졸미만 | 829(67.0) | 45(3.6) | 54(4.4) | 310(25.0) | 1,238(14.4) |
| 중졸이상 | 879(69.6) | 98(7.8) | 63(5.0) | 223(17.7) | 1,263(14.7) |
| 고졸이상 | 1,959(52.7) | 1,299(35.0) | 145(3.9) | 314(8.5) | 3,717(43.3) |
| 초대졸이상 | 325(34.1) | 550(57.7) | 30(3.2) | 48(5.0) | 953(11.1) |
| 대졸이상 | 209(14.7) | 1,052(74.2) | 98(6.9) | 59(4.2) | 1,418(16.5) |
| 계 | 4,201(48.9) | 3,044(35.4) | 390(4.5) | 954(11.1) | 8,589(100.0) |
| $\chi^2(12) = 2353.6$ , p=0.001 | | | | | |

<부표 3> 학력과 현재 계층 사이의 관계

(단위: 명, %)

| | 생산직 | 사무직 | 고용주 | 자영자 | 계 |
|---|---|---|---|---|---|
| 중졸미만 | 998(65.2) | 35(2.3) | 53(3.5) | 445(29.1) | 1,531(16.4) |
| 중졸이상 | 852(60.8) | 85(6.1) | 90(6.4) | 374(26.7) | 1,401(15.0) |
| 고졸이상 | 1,818(45.7) | 1,176(29.6) | 305(7.7) | 681(17.1) | 3,980(42.5) |
| 초대졸이상 | 277(28.2) | 537(54.6) | 68(6.9) | 101(10.3) | 983(10.5) |
| 대졸이상 | 156(10.7) | 1,010(68.9) | 172(11.7) | 127(8.7) | 1,465(15.7) |
| 계 | 4,101(43.8) | 2,843(30.1) | 688(7.4) | 1,728(18.5) | 9,360(100.0) |
| $\chi^2(12) = 2589.5$ , p=0.001 | | | | | |

<부표 4> 최초계층과 현재계층 사이의 관계

| | 최초 \ 현재 | 생산직 | 사무직 | 고용주 | 자영자 | 계 |
|---|---|---|---|---|---|---|
| 전체 | 생산직 | 3,052(74.6) | 320(7.8) | 178(4.4) | 543(13.3) | 4,093(48.8) |
| | 사무직 | 291(9.7) | 2,313(77.3) | 153(5.1) | 234(7.8) | 2,991(35.7) |
| | 고용주 | 54(14.1) | 30(7.9) | 251(65.7) | 47(12.3) | 382(4.6) |
| | 자영자 | 167(18.1) | 45(4.9) | 36(3.9) | 675(73.1) | 923(11.0) |
| | 계 | 3,564(42.5) | 2,708(32.3) | 618(7.4) | 1,499(17.9) | 8,389(100.0) |
| | $\chi^2(9)$ =8525.8 , p=0.001 | | | | | |
| 남자 | 최초 \ 현재 | 생산직 | 사무직 | 고용주 | 자영자 | 계 |
| | 생산직 | 1,637(71.1) | 178(7.7) | 153(6.6) | 335(14.6) | 2,303(55.3) |
| | 사무직 | 114(9.2) | 917(73.6) | 110(8.8) | 105(8.4) | 1,246(29.9) |
| | 고용주 | 40(14.4) | 28(10.1) | 171(61.5) | 39(14.0) | 278(6.7) |
| | 자영자 | 101(30.0) | 28(8.3) | 24(7.1) | 184(54.6) | 337(8.1) |
| | 계 | 1,892(45.4) | 1,151(27.6) | 458(11.0) | 663(15.9) | 4,164(100.0) |
| | $\chi^2(9)$ =3188.5 , p=0.001 | | | | | |
| 여자 | 최초 \ 현재 | 생산직 | 사무직 | 고용주 | 자영자 | 계 |
| | 생산직 | 1,415(79.1) | 142(7.9) | 25(1.4) | 208(11.6) | 1,790(42.4) |
| | 사무직 | 177(10.1) | 1,396(80.0) | 43(2.5) | 129(7.4) | 1,745(41.3) |
| | 고용주 | 14(13.5) | 2(1.9) | 80(76.9) | 8(7.7) | 104(2.5) |
| | 자영자 | 66(11.3) | 17(2.9) | 12(2.1) | 491(83.8) | 586(13.9) |
| | 계 | 1,672(39.6) | 1,557(36.9) | 160(3.8) | 836(19.8) | 4,225(100.0) |
| | $\chi^2(9)$ =5654.2 , p=0.001 | | | | | |

<부표 5> logit(생산직/자영자) (현재계층, 전체)

| 변수명 | 모델1 | 모델2 | 모델3 | 모델4 |
|---|---|---|---|---|
| 상수항 | 0.691 (0.169)*** | 0.655 (0.146)*** | 1.415 (0.134)*** | 1.184 (0.114)*** |
| 성별(여자) | | | | |
| 남자 | 0.396 (0.066)*** | 0.367 (0.064)*** | 0.437 (0.056)*** | 0.389 (0.055)*** |
| 혼인(기혼) | | | | |
| 미혼 | 0.649 (0.078)*** | 0.663 (0.077)*** | 0.656 (0.072)*** | 0.709 (0.071)*** |
| 가구주여부(비가구주) | | | | |
| 가구주 | -0.073 (0.065) | -0.087 (0.064) | -0.004 (0.055) | -0.030 (0.055) |
| 연령(40세 이상) | | | | |
| 40세 미만 | 0.002 (0.065) | 0.023 (0.064) | 0.069 (0.055) | 0.111 (0.054)* |
| 일반경력 | 0.002 (0.001)*** | 0.003 (0.000)*** | 0.001 (0.000) | 0.002 (0.000)*** |
| 총취업기간 | -0.006 (0.000)*** | -0.006 (0.000)*** | -0.005 (0.000)*** | -0.005 (0.000)*** |
| 교육(대졸이상) | | | | |
| 중졸미만 | 0.264 (0.121)* | | 0.629 (0.100)*** | |
| 고졸미만 | 0.114 (0.090) | | 0.291 (0.075)*** | |
| 초대졸미만 | 0.193 (0.070)** | | 0.131 (0.061)* | |
| 대졸미만 | -0.174 (0.133) | | -0.308 (0.119)** | |
| 최초취업계층(자영자) | | | | |
| 생산직 | 1.132 (0.075)*** | 1.166 (0.073)*** | | |
| 사무직 | 0.179 (0.096) | 0.145 (0.094) | | |
| 고용주 | 0.003 (0.162) | -0.009 (0.161) | | |
| 부모계층(자영자) | | | | |
| 농업 | 0.093 (0.070) | 0.119 (0.068) | 0.165 (0.061)** | 0.229 (0.058)*** |
| 생산직 | 0.166 (0.102) | 0.185 (0.101) | 0.226 (0.092)* | 0.272 (0.092)** |
| 사무직 | -0.081 (0.122) | -0.138 (0.121) | -0.047 (0.108) | -0.138 (0.106) |
| 고용주 | -0.264 (0.122)* | -0.283 (0.121)* | -0.322 (0.108)** | -0.369 (0.106)*** |
| 자산소득 | 0.000 (0.001) | -0.001 (0.001) | -0.001 (0.000)* | -0.001 (0.000)** |
| obs | 6225 | 6225 | 7030 | 7030 |
| -2log likelihood | 10602.35 | 10938.70 | 14312.10 | 15626.83 |
| chi-square | 10596.81 | 10924.83 | 14287.14 | 15575.88 |
| df | 18600 | 18582 | 20997 | 20949 |
| p-value | 1.0 | 1.0 | 1.0 | 1.0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부표 6> logit(생산직/자영자) (현재계층, 남성)

| 변수명 | 모델1 | 모델2 | 모델3 | 모델4 |
|---|---|---|---|---|
| 상수항 | 0.859 (0.226)*** | 0.882 (0.195)*** | 1.602 (0.185)*** | 1.383 (0.156)*** |
| 혼인(기혼) | | | | |
| 미혼 | 0.491 (0.118)*** | 0.488 (0.115)*** | 0.558 (0.110)*** | 0.602 (0.108)*** |
| 가구주여부(비가구주) | | | | |
| 가구주 | -0.310 (0.112)** | -0.324 (0.111)** | -0.224 (0.099)* | -0.237 (0.098)* |
| 연령(40세 이상) | | | | |
| 40세 미만 | 0.102 (0.087) | 0.105 (0.085) | 0.141 (0.075) | 0.175 (0.074)* |
| 일반경력 | 0.002 (0.001)** | 0.002 (0.001)*** | 0.001 (0.001) | 0.002 (0.001)*** |
| 총취업기간 | -0.004 (0.001)*** | -0.004 (0.001)*** | -0.003 (0.001)*** | -0.003 (0.001)*** |
| 교육(대졸이상) | | | | |
| 중졸미만 | -0.024 (0.163) | | 0.352 (0.134)** | |
| 고졸미만 | 0.005 (0.122) | | 0.180 (0.103) | |
| 초대졸미만 | 0.057 (0.090) | | -0.003 (0.079) | |
| 대졸미만 | 0.086 (0.169) | | -0.068 (0.154) | |
| 최초취업계층(자영자) | | | | |
| 생산직 | 0.992 (0.094)*** | 1.001 (0.092)*** | | |
| 사무직 | -0.089 (0.134) | -0.081 (0.130) | | |
| 고용주 | -0.173 (0.183) | -0.188 (0.182) | | |
| 부모계층(자영자) | | | | |
| 농업 | 0.105 (0.092) | 0.105 (0.090) | 0.213 (0.082)** | 0.247 (0.079)** |
| 생산직 | 0.217 (0.134) | 0.208 (0.132) | 0.245 (0.124)* | 0.270 (0.122)* |
| 사무직 | -0.137 (0.165) | -0.155 (0.163) | -0.058 (0.146) | -0.100 (0.144) |
| 고용주 | -0.281 (0.161) | -0.274 (0.159) | -0.322 (0.144)* | -0.348 (0.141)* |
| 자산소득 | -0.001 (0.001) | -0.001 (0.001) | -0.002 (0.001)* | -0.002 (0.001)** |
| obs | 3397 | 3397 | 3983 | 3983 |
| -2log likelihood | 6218.66 | 6451.09 | 8475.27 | 9422.0 |
| chi-square | 6213.12 | 6442.77 | 8464.18 | 9394.27 |
| df | 10125 | 10122 | 11886 | 11862 |
| p-value | 1.0 | 1.0 | 1.0 | 1.0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부표 7> logit(생산직/자영자) (현재계층, 여성)

| 변수명 | 모델1 | 모델2 | 모델3 | 모델4 |
|---|---|---|---|---|
| 상수항 | 0.825 (0.297)** | 0.800 (0.261)** | 1.333 (0.220)*** | 1.169 (0.186)*** |
| 혼인(기혼) | | | | |
| 미혼 | 0.697 (0.127)*** | 0.667 (0.122)*** | 0.629 (0.111)*** | 0.644 (0.107)*** |
| 가구주여부(비가구주) | | | | |
| 가구주 | 0.083 (0.098) | 0.070 (0.097) | 0.166 (0.079)* | 0.148 (0.078) |
| 연령(40세 이상) | | | | |
| 40세 미만 | -0.133 (0.101) | -0.101 (0.100) | 0.004 (0.081) | 0.046 (0.080) |
| 일반경력 | 0.001 (0.001) | 0.002 (0.001)** | 0.000 (0.001) | 0.002 (0.001)** |
| 총취업기간 | -0.009 (0.001)*** | -0.009 (0.001)*** | -0.007 (0.001)*** | -0.007 (0.001)*** |
| 교육(대졸이상) | | | | |
| 중졸미만 | 0.735 (0.199)*** | | 1.124 (0.161)*** | |
| 고졸미만 | 0.384 (0.150)* | | 0.550 (0.122)*** | |
| 초대졸미만 | 0.461 (0.123)*** | | 0.415 (0.107)*** | |
| 대졸미만 | -0.545 (0.235)* | | -0.635 (0.206)** | |
| 최초취업계층(자영자) | | | | |
| 생산직 | 1.175 (0.147)*** | 1.255 (0.144)*** | | |
| 사무직 | 0.281 (0.167) | 0.223 (0.162) | | |
| 고용주 | 0.469 (0.368) | 0.448 (0.365) | | |
| 부모계층(자영자) | | | | |
| 농업 | 0.103 (0.109) | 0.179 (0.106) | 0.116 (0.091) | 0.237 (0.088)** |
| 생산직 | 0.032 (0.161) | 0.105 (0.158) | 0.170 (0.142) | 0.264 (0.140) |
| 사무직 | 0.059 (0.188) | -0.076 (0.185) | -0.031 (0.163) | -0.200 (0.158) |
| 고용주 | -0.245 (0.195) | -0.311 (0.190) | -0.330 (0.166)* | -0.427 (0.163)** |
| 자산소득 | 0.000 (0.001) | 0.000 (0.001) | 0.000 (0.001) | -0.001 (0.001) |
| obs | 2828 | 2828 | 3047 | 3047 |
| -2log likelihood | 4185.71 | 4309.40 | 5648.96 | 6041.11 |
| chi-square | 4185.71 | 4303.85 | 5635.10 | 6017.88 |
| df | 8424 | 8421 | 9069 | 9057 |
| p-value | 1.0 | 1.0 | 1.0 | 1.0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부표 8> logit(사무직/자영자) (현재계층, 전체)

| 변수명 | 모델1 | 모델2 | 모델3 | 모델4 |
|---|---|---|---|---|
| 상수항 | 0.153 (0.216) | 1.497 (0.176)*** | 0.727 (0.173)*** | 2.857 (0.132)*** |
| 성별(여자) | | | | |
| 남자 | 0.074 (0.076) | 0.257 (0.074)*** | -0.212 (0.064)*** | -0.009 (0.060) |
| 혼인(기혼) | | | | |
| 미혼 | 0.693 (0.084)*** | 0.545 (0.082)*** | 0.693 (0.076)*** | 0.435 (0.072)*** |
| 가구주여부(비가구주) | | | | |
| 가구주 | 0.006 (0.077) | 0.046 (0.076) | 0.084 (0.065) | 0.173 (0.062)** |
| 연령(40세 이상) | | | | |
| 40세 미만 | -0.113 (0.081) | -0.305 (0.078)*** | -0.058 (0.068) | -0.369 (0.063)*** |
| 일반경력 | 0.000 (0.001) | -0.005 (0.001)*** | -0.001 (0.001) | -0.009 (0.001)*** |
| 총취업기간 | -0.002 (0.001)*** | -0.001 (0.001)* | -0.001 (0.001) | 0.001 (0.000) |
| 교육(대졸이상) | | | | |
| 중졸미만 | -1.679 (0.260)*** | | -2.338 (0.218)*** | |
| 고졸미만 | -0.905 (0.155)*** | | -1.435 (0.135)*** | |
| 초대졸미만 | 0.283 (0.096)** | | 0.355 (0.081)*** | |
| 대졸미만 | 0.896 (0.142)*** | | 1.347 (0.123)*** | |
| 최초취업계층(자영자) | | | | |
| 생산직 | -0.006 (0.101) | -0.247 (0.096)* | | |
| 사무직 | 1.897 (0.100)*** | 2.124 (0.098)*** | | |
| 고용주 | -0.104 (0.198) | -0.019 (0.193) | | |
| 부모계층(자영자) | | | | |
| 농업 | 0.005 (0.080) | -0.173 (0.077)* | -0.041 (0.067) | -0.345 (0.063)*** |
| 생산직 | -0.044 (0.114) | -0.166 (0.112) | 0.069 (0.100) | -0.131 (0.095) |
| 사무직 | 0.107 (0.119) | 0.297 (0.118)* | 0.193 (0.103) | 0.513 (0.099)*** |
| 고용주 | -0.197 (0.122) | -0.031 (0.120) | -0.227 (0.105)* | 0.047 (0.101) |
| 자산소득 | 0.000 (0.000) | 0.001 (0.001) | 0.000 (0.000) | 0.001 (0.000) |
| obs | 6225 | 6225 | 7030 | 7030 |
| -2log likelihood | 10602.35 | 10938.70 | 14312.10 | 15626.83 |
| chi-square | 10596.81 | 10924.83 | 14287.14 | 15575.88 |
| df | 18600 | 18582 | 20997 | 20949 |
| p-value | 1.0 | 1.0 | 1.0 | 1.0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부표 9> logit(사무직/자영자) (현재계층, 남성)

| 변수명 | 모델1 | 모델2 | 모델3 | 모델4 |
|---|---|---|---|---|
| 상수항 | -0.184 (0.289) | 1.344 (0.230)*** | 0.115 (0.236) | 2.362 (0.176)*** |
| 혼인(기혼) | | | | |
| 미혼 | 0.503 (0.141)*** | 0.291 (0.137)* | 0.558 (0.124)*** | 0.245 (0.117)* |
| 가구주여부(비가구주) | | | | |
| 가구주 | -0.202 (0.134) | -0.183 (0.131) | -0.129 (0.113) | -0.067 (0.107) |
| 연령(40세 이상) | | | | |
| 40세 미만 | -0.004 (0.108) | -0.219 (0.103)* | -0.020 (0.091) | -0.355 (0.082)*** |
| 일반경력 | 0.002 (0.001) | -0.003 (0.001)*** | 0.001 (0.001) | -0.006 (0.001)*** |
| 총취업기간 | -0.002 (0.001)* | -0.001 (0.001) | -0.001 (0.001) | 0.000 (0.001) |
| 교육(대졸이상) | | | | |
| 중졸미만 | -1.801 (0.350)*** | | -2.324 (0.281)*** | |
| 고졸미만 | -0.947 (0.213)*** | | -1.423 (0.182)*** | |
| 초대졸미만 | 0.041 (0.131) | | -0.028 (0.110) | |
| 대졸미만 | 1.055 (0.191)*** | | 1.463 (0.166)*** | |
| 최초취업계층(자영자) | | | | |
| 생산직 | -0.312 (0.122)* | -0.560 (0.117)*** | | |
| 사무직 | 1.783 (0.129)*** | 2.127 (0.123)*** | | |
| 고용주 | -0.242 (0.214) | -0.120 (0.205) | | |
| 부모계층(자영자) | | | | |
| 농업 | 0.109 (0.109) | -0.094 (0.104) | 0.126 (0.093) | -0.223 (0.085)** |
| 생산직 | 0.139 (0.162) | -0.031 (0.157) | 0.142 (0.141) | -0.137 (0.131) |
| 사무직 | 0.045 (0.165) | 0.268 (0.162) | 0.217 (0.145) | 0.609 (0.135)*** |
| 고용주 | -0.468 (0.172)** | -0.248 (0.168) | -0.436 (0.149)** | -0.074 (0.139) |
| 자산소득 | 0.000 (0.001) | 0.001 (0.001) | 0.000 (0.001) | 0.001 (0.001) |
| obs | 3397 | 3397 | 3983 | 3983 |
| -2log likelihood | 6218.66 | 6451.09 | 8475.27 | 9422.0 |
| chi-square | 6213.12 | 6442.77 | 8464.18 | 9394.27 |
| df | 10125 | 10122 | 11886 | 11862 |
| p-value | 1.0 | 1.0 | 1.0 | 1.0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부표 10> logit(사무직/자영자) (현재계층, 여성)

| 변수명 | 모델1 | 모델2 | 모델3 | 모델4 |
|---|---|---|---|---|
| 상수항 | 0.619 (0.401) | 1.699 (0.352)*** | 1.538 (0.291)*** | 3.327 (0.233)*** |
| 혼인(기혼) | | | | |
| 미혼 | 0.698 (0.129)*** | 0.567 (0.126)*** | 0.620 (0.112)*** | 0.406 (0.109)*** |
| 가구주여부(비가구주) | | | | |
| 가구주 | -0.049 (0.126) | -0.025 (0.123) | 0.038 (0.107) | 0.117 (0.102) |
| 연령(40세 이상) | | | | |
| 40세 미만 | -0.307 (0.131)* | -0.452 (0.126)*** | -0.129 (0.108) | -0.354 (0.101)*** |
| 일반경력 | -0.003 (0.001)* | -0.007 (0.001)*** | -0.004 (0.001)*** | -0.011 (0.001)*** |
| 총취업기간 | -0.003 (0.001)*** | -0.003 (0.001)** | -0.001 (0.001) | 0.000 (0.001) |
| 교육(대졸이상) | | | | |
| 중졸미만 | -1.223 (0.389)** | | -1.814 (0.345)*** | |
| 고졸미만 | -0.807 (0.233)*** | | -1.274 (0.203)*** | |
| 초대졸미만 | 0.510 (0.143)*** | | 0.685 (0.125)*** | |
| 대졸미만 | 0.624 (0.215)** | | 1.071 (0.184)*** | |
| 최초취업계층(자영자) | | | | |
| 생산직 | 0.533 (0.245)* | 0.337 (0.238) | | |
| 사무직 | 2.067 (0.239)*** | 2.193 (0.235)*** | | |
| 고용주 | -0.410 (0.631) | -0.332 (0.623) | | |
| 부모계층(자영자) | | | | |
| 농업 | -0.125 (0.121) | -0.250 (0.117)* | -0.245 (0.100)* | -0.468 (0.095)*** |
| 생산직 | -0.308 (0.164) | -0.362 (0.163)* | -0.079 (0.144) | -0.180 (0.141) |
| 사무직 | 0.259 (0.177) | 0.384 (0.176)* | 0.225 (0.150) | 0.421 (0.147)** |
| 고용주 | 0.135 (0.179) | 0.210 (0.178) | 0.043 (0.150) | 0.200 (0.149) |
| 자산소득 | 0.000 (0.001) | 0.001 (0.001) | 0.000 (0.001) | 0.000 (0.001) |
| obs | 2828 | 2828 | 3047 | 3047 |
| -2log likelihood | 4185.71 | 4309.40 | 5648.96 | 6041.11 |
| chi-square | 4185.71 | 4303.85 | 5635.10 | 6017.88 |
| df | 8424 | 8421 | 9069 | 9057 |
| p-value | 1.0 | 1.0 | 1.0 | 1.0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부표 11> logit(고용주/자영자) (현재계층, 전체)

| 변수명 | 모델1 | 모델2 | 모델3 | 모델4 |
|---|---|---|---|---|
| 상수항 | -0.835 (0.249)*** | -0.021 (0.214) | -1.114 (0.210)*** | -0.055 (0.177) |
| 성별(여자) | | | | |
| 남자 | 0.450 (0.104)*** | 0.577 (0.101)*** | 0.449 (0.096)*** | 0.628 (0.093)*** |
| 혼인(기혼) | | | | |
| 미혼 | 0.210 (0.126) | 0.103 (0.125) | 0.259 (0.117)* | 0.092 (0.116) |
| 가구주여부(비가구주) | | | | |
| 가구주 | 0.088 (0.103) | 0.088 (0.102) | 0.211 (0.094)* | 0.221 (0.093)* |
| 연령(40세 이상) | | | | |
| 40세 미만 | -0.283 (0.097)** | -0.408 (0.095)*** | -0.194 (0.084)* | -0.364 (0.081)*** |
| 일반경력 | 0.002 (0.001)* | -0.001 (0.001) | 0.002 (0.001)** | -0.002 (0.001)** |
| 총취업기간 | -0.003 (0.001)*** | -0.003 (0.001)*** | -0.003 (0.001)*** | -0.003 (0.001)*** |
| 교육(대졸이상) | | | | |
| 중졸미만 | -1.233 (0.229)*** | | -1.553 (0.198)*** | |
| 고졸미만 | -0.317 (0.146)* | | -0.459 (0.125)*** | |
| 초대졸미만 | 0.161 (0.104) | | 0.170 (0.091) | |
| 대졸미만 | 0.566 (0.175)** | | 0.666 (0.157)*** | |
| 최초취업계층(자영자) | | | | |
| 생산직 | -0.262 (0.101)** | -0.394 (0.099)*** | | |
| 사무직 | 0.217 (0.114) | 0.387 (0.110)*** | | |
| 고용주 | 1.793 (0.146)*** | 1.843 (0.144)*** | | |
| 부모계층(자영자) | | | | |
| 농업 | -0.217 (0.101)* | -0.336 (0.099)*** | -0.204 (0.088)* | -0.410 (0.086)*** |
| 생산직 | -0.042 (0.154) | -0.152 (0.153) | -0.005 (0.141) | -0.151 (0.138) |
| 사무직 | 0.006 (0.156) | 0.142 (0.154) | 0.003 (0.138) | 0.214 (0.135) |
| 고용주 | -0.057 (0.155) | 0.064 (0.153) | 0.030 (0.135) | 0.224 (0.133) |
| 자산소득 | 0.000 (0.001) | 0.001 (0.001) | 0.000 (0.000) | 0.001 (0.000) |
| obs | 6225 | 6225 | 7030 | 7030 |
| -2log likelihood | 10602.35 | 10938.70 | 14312.10 | 15626.83 |
| chi-square | 10596.81 | 10924.83 | 14287.14 | 15575.88 |
| df | 18600 | 18582 | 20997 | 20949 |
| p-value | 1.0 | 1.0 | 1.0 | 1.0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부표 12> logit(고용주/자영자) (현재계층, 남성)

| 변수명 | 모델1 | 모델2 | 모델3 | 모델4 |
|---|---|---|---|---|
| 상수항 | -0.720 (0.304)* | 0.270 (0.256) | -0.963 (0.259)*** | 0.298 (0.211) |
| 혼인(기혼) | | | | |
| 미혼 | -0.073 (0.176) | -0.212 (0.173) | -0.014 (0.162) | -0.215 (0.159) |
| 가구주여부(비가구주) | | | | |
| 가구주 | -0.255 (0.151) | -0.256 (0.149) | -0.166 (0.134) | -0.154 (0.132) |
| 연령(40세 이상) | | | | |
| 40세 미만 | -0.111 (0.115) | -0.249 (0.113)* | -0.090 (0.101) | -0.281 (0.097)** |
| 일반경력 | 0.002 (0.001)* | -0.001 (0.001) | 0.003 (0.001)*** | -0.001 (0.001) |
| 총취업기간 | -0.002 (0.001)* | -0.001 (0.001) | -0.002 (0.001)** | -0.002 (0.001)** |
| 교육(대졸이상) | | | | |
| 중졸미만 | -1.379 (0.281)*** | | -1.711 (0.239)*** | |
| 고졸미만 | -0.502 (0.182)** | | -0.642 (0.156)*** | |
| 초대졸미만 | 0.138 (0.125) | | 0.100 (0.109) | |
| 대졸미만 | 0.758 (0.207)*** | | 0.868 (0.188)*** | |
| 최초취업계층(자영자) | | | | |
| 생산직 | -0.286 (0.117)* | -0.420 (0.114)*** | | |
| 사무직 | 0.219 (0.141) | 0.442 (0.136)** | | |
| 고용주 | 1.474 (0.163)*** | 1.516 (0.159)*** | | |
| 부모계층(자영자) | | | | |
| 농업 | -0.123 (0.120) | -0.255 (0.117)* | -0.068 (0.106) | -0.302 (0.102)** |
| 생산직 | 0.076 (0.183) | -0.057 (0.180) | 0.047 (0.168) | -0.136 (0.164) |
| 사무직 | -0.097 (0.194) | 0.063 (0.189) | -0.028 (0.172) | 0.222 (0.167) |
| 고용주 | -0.267 (0.190) | -0.123 (0.187) | -0.163 (0.168) | 0.080 (0.163) |
| 자산소득 | 0.001 (0.001) | 0.001 (0.001) | 0.000 (0.001) | 0.001 (0.001) |
| obs | 3397 | 3397 | 3983 | 3983 |
| -2log likelihood | 6218.66 | 6451.09 | 8475.27 | 9422.0 |
| chi-square | 6213.12 | 6442.77 | 8464.18 | 9394.27 |
| df | 10125 | 10122 | 11886 | 11862 |
| p-value | 1.0 | 1.0 | 1.0 | 1.0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

<부표 13> logit(고용주/자영자) (현재계층, 여성)

| 변수명 | 모델1 | 모델2 | 모델3 | 모델4 |
|---|---|---|---|---|
| 상수항 | -0.422 (0.532) | 0.252 (0.462) | -0.813 (0.441) | 0.307 (0.357) |
| 혼인(기혼) | | | | |
| 미혼 | 0.279 (0.242) | 0.189 (0.233) | 0.247 (0.208) | 0.111 (0.204) |
| 가구주여부(비가구주) | | | | |
| 가구주 | 0.227 (0.169) | 0.220 (0.167) | 0.527 (0.139)*** | 0.543 (0.137)*** |
| 연령(40세 이상) | | | | |
| 40세 미만 | -0.776 (0.202)*** | -0.901 (0.197)*** | -0.526 (0.173)** | -0.712 (0.167)*** |
| 일반경력 | 0.000 (0.002) | -0.003 (0.002) | 0.000 (0.002) | -0.004 (0.001)*** |
| 총취업기간 | -0.003 (0.001)* | -0.003 (0.001)* | -0.003 (0.001)* | -0.002 (0.001) |
| 교육(대졸이상) | | | | |
| 중졸미만 | -1.040 (0.436)* | | -1.480 (0.384)*** | |
| 고졸미만 | 0.032 (0.277) | | -0.190 (0.226) | |
| 초대졸미만 | 0.044 (0.212) | | 0.135 (0.187) | |
| 대졸미만 | 0.194 (0.384) | | 0.378 (0.340) | |
| 최초취업계층(자영자) | | | | |
| 생산직 | -0.639 (0.229)** | -0.758 (0.221)*** | | |
| 사무직 | 0.139 (0.226) | 0.204 (0.215) | | |
| 고용주 | 2.865 (0.348)*** | 2.950 (0.345)*** | | |
| 부모계층(자영자) | | | | |
| 농업 | -0.306 (0.215) | -0.418 (0.205)* | -0.384 (0.185)* | -0.583 (0.176)** |
| 생산직 | -0.261 (0.325) | -0.371 (0.322) | -0.112 (0.289) | -0.265 (0.285) |
| 사무직 | 0.293 (0.286) | 0.389 (0.280) | 0.193 (0.251) | 0.368 (0.246) |
| 고용주 | 0.249 (0.289) | 0.392 (0.276) | 0.338 (0.242) | 0.562 (0.234)* |
| 자산소득 | 0.000 (0.001) | 0.000 (0.001) | 0.000 (0.001) | 0.000 (0.001) |
| obs | 2828 | 2828 | 3047 | 3047 |
| -2log likelihood | 4185.71 | 4309.40 | 5648.96 | 6041.11 |
| chi-square | 4185.71 | 4303.85 | 5635.10 | 6017.88 |
| df | 8424 | 8421 | 9069 | 9057 |
| p-value | 1.0 | 1.0 | 1.0 | 1.0 |

주 1) ( ) 안은 표준오차임.
2) *** : p=0.001 ** : p=0.01 * : p=0.05 수준에서 유의